

발간 등록번호  
76-901000-000008-06

2008 **10** 제188호(통권 407호)

#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경남교육 사표(師表) 헌장 제정에 부처 / 교육감  
이재욱 명예회장을 찾아서  
장학특집 - 환경교육  
전문가 초대석 / 알아두면 편리한 금융정보(3)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 경남교육 사표(師表) 헌장

우리 경남교원은 교육이 인간의 존엄과 국가의 미래를 보장함을 명심하고 확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전문성을 신장하여, 학생이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표(師表)로서의 길을 밝힌다.

1. 우리는 교육전문가로서의 긍지와 열정으로 교과수업에 매진한다.
1. 우리는 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개인의 소질과 적성 계발에 최선을 다한다.
1. 우리는 교육자적 양심과 인격으로 청렴한 교직문화 형성에 선도적으로 참여한다.
1. 우리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원활한 소통으로 참된 교육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1.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적극 기여한다.



## 공 터

비어있어 넉넉한  
동네한켠 공터에서  
코스모스 뒤축 들며 꿈재기할 때  
햇살은  
아이들 꿈을  
구름발치 키워낸다.

아이들 뛰노는 소리  
무대만큼 높아지고  
잠자리 몸짓 따라 가을노래 익어갈 때  
바람은  
박수갈채를  
꽃보라로 뿌려댄다.



• 글 : 김종영 (김해 부곡초등학교 교사)  
• 삽화 : 손보경 (김해 덕정초등학교 교사)



# 경남교육 사표(師表)



가을빛이 완연합니다. 지난 여름은 더위가 기승을 부려 학생 지도에 여념이 없었던 학교 현장에서 노고가 컸을 줄 압니다. 그러나 숭고한 인간 정신을 기르는 보람을 생각하며 한 해의 결실에 매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남교육 사표 현장을 제정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원단체가 주도하여 교원 관련 현장을 발표한 바 있지만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처음이라고 봅니다.



혹자는 새삼스럽게 무슨 사표 현장이냐 하겠지만, 교사는 스승으로서 학생의 꽃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정(自淨) 노력을 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부모 신뢰를 얻어야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제정에 부쳐

저는 교사가 스승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권확립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애정과 열정으로 교육에 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또한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20개 지역교육청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완료하고, 교육규칙도 제정하였습니다. 교권침해 상담 변호사를 권역별로 확대하여, 지역의 선생님들이 쉽게 대면상담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항력시 지역과 도교육청 교권전담팀에서 적극적으로 교권침해 사안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교사들의 권리만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만, 교권바로세우기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교사다움과 학생다움과 학부모다움이 우뚝 선 경남교육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10. 1.

경상남도교육감



# 2008년도 경남교육 기본 방향

## 교육 지표

능력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

## 교육 시책

- 학생이 행복한 교육 -

-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인간 교육
-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인재 교육
- 지식강국 기반을 다지는 정보화 교육
- 도민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교육 행정

## 역점 과제

- 인격을 존중하는 생활지도
- 체험중심의 친환경교육
- 독서·논술교육 강화
- 창의성교육 강화
- 무상교육 지원 확대



# 장학월보

2008 10 제188호(통권 407호)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 01 장학갤러리
- 02 권두언
- 06 장학칼럼
- 08 기획시리즈

## 16 장학특집

### 환경교육

## 34 전문가 초대석

## 38 수업기술 나누기

## 46 교육정보

## 53 현장포커스

## 57 참여마당

## 65 향기나는 서가

## 67 교원지상갤러리

- 공터 / 김종영, 손보경
- 경남교육 사표(師表) 헌장 제정에 부처 / 교육감
- 진정 敎權은 쓰러졌는가? / 문창권
- 농업혁명을 꿈꾸는 '노키아의 전설' 이재욱 명예회장을 찾아서
- 경남환경교육연구회 들여다보기 / 은재운
- 환경교육의 방향 / 이주희
- 환경올림픽, 람사르총회 개최와 환경경남 / 박진평
- 『화포습지 3H활동』을 통한 습지보전 의식의 확산 / 박금남
- 지역환경단체와의 연계 체험활동을 통한 환경의식 함양 / 강인숙
-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자연친화적 태도 함양 / 김동욱
- 알아두면 편리한 금융정보(3) / 신동원
- 건강상식(1)-요통에 대해 / 강명상
- 알아야, 음악시간이 제대로 즐겁다 / 송예순
- 개념 학습장'을 활용한 경제 수업 / 정창욱
- 함께 나누어요 - 정보교환 구조 / 이진옥
-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기술 지도(5) / 임경미
- 시험 스트레스의 치료제 경남 e-모의고사! / 박동식
- 교권 바로 세우기와 몬스터 피어렌트 / 오세현
- 호계 명문 교육 7대 프로젝트 / 전광숙
- 교원 마당 - 천덕꾸러기에게 배운 지혜 / 김현곤
- 비움과 채움 / 최미
- 학부모 마당 - 말을 잘 합니다 / 변성자
- 부모노릇 자식노릇 / 김현옥
- 학생 마당 - 백제의 흔적과 녹차 밭을 찾아서 / 김소담
-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싶다 / 이준철
- 영어몰입교육 외 3편
- 가을 뜨락 / 김정순

▶ 표지사진 - 박준일 (마산감천초등학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한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11월호 모집 기간 : 2008년 10월 20일까지
- 모집내용 : 학교소식(현장포커스),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독자후기 등
- 분량 : A4 1매 내외
-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중앙로 149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이메일: janghak@gnedu.net

2008년 10월 1일 발행

-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권정호
- 총괄: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 기획: 장학담당장학관 임성택
- 편집주간: 초등교육과 장학사 강호경
- 편집위원: 김만호, 박재철, 박성년, 전미화
- 인쇄: 문성인쇄사 (055) 282-9922

# 진정 敎權은 쓰러졌는가?



문 창 권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교권 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인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8년 9월 1일부로 교권 바로세우기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필요성과 목적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며 또한 경남 교육 사표(師表) 헌장도 교원이 추구해야 할 길이며 지표이다.

교육에 뜻을 두고 몸담은 지 어느덧 삼십오년이 되었건만,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앞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맹자(孟子)의 진심장(盡心章) 상편(上篇)에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三樂)을 ‘부모가 모두 살아 계시고 형제가 아무 탈 없음이 첫 번째 즐거움(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고개 숙여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음이 두 번째 즐거움(仰不愧於天 俯不於人 二樂也), 천하에 영특한 인재(得天下英才)를 얻어 가르침이 세 번째 즐거움(而教育之 三樂也)’ 고 하였다. 비록 군자는 못 될지라도 후학을 가르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생활해 온 선생님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신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선생은 있되,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되 제자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만큼 교권이 땅에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물질문명이 극대화해 갈수록 스승과 제자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교사로서 반성의 계기가 되는 말이기도 하다.

옛날 서양의 교육법전 ‘탈무드’에는 학교와 선생이 없는 곳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구역으로 정하였고, 스승은 사실 자기를 낳아 준 부모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또 동양에서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하여 아버지와 스승을 동일시하고 있다. 서양이든 동양이든 그만큼 스승에 대한 존재 가치를 높이 두고 있다는 것이다.

교권이 떨어진 이 때에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 학부모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지 않을 수 없는 말이다. 급변하는 지구촌은 지식 기반과 정보화, 그리고 첨단 기술 등을 테마로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더불어 학생들도 부모님의 생각을 훨씬 뛰어 넘는 생각으로 미래로 치닫고 있다. 더구나 요즘 학생들은 비단 학교가 아니더라도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기에 학교의 기능은 점차 최소화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기계를 만들어 내는 곳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기 위해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는 곳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헬렌 켈러와 설리번 여사, 안회와 공자, 그리고 페스탈로찌’를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그들의 업적 때문이 아니다.

제자의 가능성을 찾아 그것을 믿고 계발하기에 온 정성을 다하신 선생님과, 그 선생님을 믿고 공경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시경(詩經) 위풍(威風) 기옥(淇奥)편에 ‘톱으로 자르는 듯하고, 줄로 스듯하며(如切如磋), 끌로 쏘 듯하고, 숫돌로 간 듯 하도다(如琢如磨)’라는 말이 있다. 이는 뼈나 상아나 옥돌로 물건을 만들 때, 순서를 밟아 다듬고 또 다듬어 완전무결한 물건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는데, 학문을 닦고 수양을 쌓는 데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자 한 명 한 명을 대하면서 정성과 사랑으로 대하고, 절차탁마(切磋琢磨)하는 심정으로 모든 제자를 가르치면, 제자와 학부모가 우리의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워 주리라 믿는다.

교권은 사도헌장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닐까?

# 농업혁명을 꿈꾸는 '노키아의 전설' 이재욱 명예회장을 찾아서



- 휴대폰업계의 전설 같은 사람, 이재욱 회장의 성공스토리는 세계의 화제가 된 바 있고, 많은 CEO들이 지금도 본으로 삼는다고 한다. 장학월보가 이재욱 회장과 대담을 하고자 한 것은 그가 매년 수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재욱 회장의 기업 경영 성공과 그가 꿈꾸는 농업혁명의 비전이 궁극적으로 인재 육성이 라는 인간교육에 바탕 하기 때문이다. 이재욱 회장을 통하여 경남 교육의 방향을 모색 하고자 한다. -

■ 평소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생관, 기업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저는 '열심히 하는 곳에 길이 있다' 는 뜻을 가진 盡人事待天命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으며, 기업의 생존은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익을 많이 창출 하면 할수록 고용을 늘려 가정을 안정시키고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관 또는 기업관은, 열심히 일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을 못내는 기업은 사회와 가정에 불안을 가져오기에 모두가 기업이 잘 되도록 힘을 모아 주어야 합니다.

■ 회장님께서서는 노키아 티엠씨의 성공 경영으로 전국적, 세계적인 인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노키아 티엠씨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제가 노키아 티엠씨의 회장으로 일하기 전까지 1년 6개월여 동안 3명의 회장이 중도 하차하였습니다. 마산은 기업 환경이 열악한 곳인데다 노사 문제로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기업하기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기회라고 인식하였습니다. 노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생계비 확보를 위한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산의 인건비는 대기업의 절반 수준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면 무지무지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회사원들의 성향과 능력을 분석하고, 개인별 능력에 따라 4~5명씩 팀을 짜서 회사의 목표를 향해 모든 사원들이 힘차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팀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고 조화를 중요시하여 신바람 나게 회사 일을 내 일과 같이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장은 팀장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팀원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과 모험이 필요한 것은 시장이 분명히 책임지고 한 것이 성공의 결정적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든 신뢰하면서 찬스를 주면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학습 능력을 최고조로 발휘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은 할 수 있다는 생각, 열심히 일하도록 환경을 제공하면 기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장이 직접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일을 잘 합니다. 신바람 나는 경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영으로 1인당 350만 달러의 매출과 1~2억원의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 회장님은 자택에 태극기와 핀란드 국기를 상시 게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 핀란드는 나를 믿고 전권을 주어 회사를 경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였고, 핀란드 최고의 명예로 나를 인정해주었습니다. 핀란드는 조국 못지않게 애착이 많이 가는 나라입니다.

한국과 핀란드는 나를 태어나게 했고, 키웠으며, 열정을 다하여 일하게 한 나라입니다. 뜻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한 나의 조국과 핀란드의 국기를 게양하여 감사를 표하고자 국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 회장님께서서는 교육 혁신, 교육경영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공 전략을 교육경영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잘 되고 있는 기업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구조와 기술, 관리 방식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앞서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따라서 사장은 물론 사원들의 능력을 계속 상황에 맞도록 키우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학교 교육도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 회장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종류와 자원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상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 마산교육청 추천 관내 중·고생 44명, 진북면 소재 학교의 초·중·고생 40명, 언론사 추천 중·고생 20명, 칠일로 장학금(여성의 집),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그 자녀 20여명에게, 그리고 우수한 학생(박사과정 포함)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뜻있는 사람들의 협조와 제 자신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특별히 많은 장학금을 주는 것은, 이들 학생들은 작은 돈도 매우 소중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며, 형편이 어렵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잠재 능력을 발휘하여 쓸모 있는 사람으로 자랄 것을 당부하고자 함입니다. 한편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골라 장차 우리 사회의 유력한 지도자가 되어 달라는 뜻으로 특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봉림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진로와 장학회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교육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학금이 진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선생님들을 통해 제가 의도한 목적이 잘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교성적도 사회에서 중요하지만, 각자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재능을 살리는 공부에 노력하길 기대하며, 성공한 과학인, 예술인, 기능인, 영업인 등의 90% 이상이 자기의 재능을 잘 발휘한 경우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 **명예회장님께서 농업 혁명을 위해 하고 계신 일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은퇴를 하고 이 곳(마산시 진북면)에 터를 잡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 병도 고쳤으며, 재산도 많이 모았고, 명예도 누릴 만큼 누렸으며 자녀도 잘 성장시켰으니 더 이상 부족할 게 없다고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는 설득되지 않는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해 진미를 금 그릇에 담아 먹은들 그것이 무슨 가치로운 일이며, 관광을 아무리 다녀본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농민이 사는 길을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농업혁명의 첫 번째는 쌀의 생산 원가를 크게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쌀은 맛이 있어서 많이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친환경의 쌀을 생산해야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장농법'을 연구하여 성공하였습니다. 노동력이 매우 적게 들면서 친환경의 농법으로 생산하는 것이 지장농법입니다.

두 번째의 농업혁명은 생산한 쌀의 소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연간 450만톤의 쌀을 생산하여 그 중 100만톤을 창고에서 썩히는 상황입니다. 100만톤이라면 쌀가마니로 경부고속도로를 25줄로 쌓을 수 있는 양입니다. 밥과 떡으로는 이것을 소비할 수 없습니다. 수입되는 밀가루 200만톤을 쌀로 대체해야 합니다. 밀을 이기기 위한 방안으로 '고아미' 쌀을 재배하고 나노공법을 도입하여 쌀국수를 만드는 등 쌀의 재가공에 성공하였습니다. 쌀을 이용한 국수, 과자 등 다른 식재료에 사용하게 되면 쌀의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참으로 혁명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동행한 체육보건교육과의 배대순 주사는 이회장이 개발한 쌀국수를 학교 급식으로 도입하였더니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면서, 쌀국수는 우리의 식단과 농업에 있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세 번째는, 그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그 지역의 농민이 판매하는 유통의 혁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땅의 오염을 막는 친환경의 지장농법, 즉 흙이 태양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모작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생태계를 살리면 하천이 살고, 하천이 살면 어자원이 늘고 도시민은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온 도시민이 그 지역에서 생산한 쌀과 보리, 밀을 믿고 사면서 그 지역에서 돈을 쓰게 될 것입니다.

저의 농업혁명 3단계는 쌀 생산을 1, 2, 3차 산업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거의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농민이 믿지 않고 위정자가 반신반의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는 현장을 보여주고 믿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재욱 회장은 자신의 저서 '노키아와 영혼을 바꾸다'에서 개인이나 국가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구성원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그가 꿈꾸는 농업혁명이 성공하면 노키아 회사 2개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이라는 신념과 실천 의지는 우리들을 숙연하게 만든다 -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교육 인재강국으로 나가기 위해 특별히 힘써야 할 교육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너무 높고 이는 좋은 현상이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가능성 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표 현일지 모르나 학생들 중 90% 이상은 자신의 진로에 직결된 교육투자를 하고 있는지 의문 이 듭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많이 발전하였다고 봅니다만, 더욱 노력하여 학생들의 성향이 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그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게 하여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웃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 3%가 우리 사회의 고용을 창출합니다. 따라서 우수 인재 육성에 더욱 힘쓰면서 나머지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 즐겁게 일하는 전문인을 기르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훌륭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 지도 한번쯤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육이 영어 때문에 돈, 시간, 정력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장 창원, 마산, 진주에서 성공한 기업 사장 들, 훌륭한 예술가들 중 이른바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은 10%가 아니 됨을 알아야 합니다.

■ 권정호 교육감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고, 서로 교감하신 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과의 대화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며, 경남교육가족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 권정호 교육감님과의 대화는 참으로 유익하였습니다. 학자풍의 올곧은 선비정신을 가진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시스템은 철저히 관리되되 나머지는 open해서 조직을 활성화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학생교육에 있어서도 3% 정도는 특별한 영재로 교육하고, 나머지 97%는 타고난 소질을 제대로 살려 쓸모 있는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남교육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경남교육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진 촬영 이동호)



# 경남환경교육연구회 들여다보기



온 재 윤

경남환경교육연구회장  
창원 용지초등학교 교장

경남환경교육연구회는 환경에 관한 이론 및 환경체험 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녹색 생명 운동을 실천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 순환 사회를 건설하며, 미래 사회의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민적 홍보와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친환경적인 인간상을 구축하고, 역동성 있는 성찰과 대안적 비판으로 미래 경남 환경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년 창립하여 2007년 6월에 승인을 받았으며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 가. 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과 계몽활동
- 나. 자연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
- 다. 환경교육 연구활동
- 라. 환경교육자료 연구 및 개발·보급
- 마. 환경교육 직무연수 및 환경체험활동 주관
- 바. 환경교육 확산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

## 1. 회원 구성

- 가. 총 회 원 : 경상남도 초, 중, 고 교원 114명
- 나. 회 장 : 온재윤(창원 용지초등학교 교장)
- 다. 부 회 장 : 문종건(산청 송계고등학교 교사)
- 라. 사무국장 : 박수호(진주고등학교 교사)
- 마. 총 무 : 공태수(거제 중앙중학교 교사)

## 2. 연구회의 발자취

연 도	내 용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립(1999. 11. 1.)</li> </ul>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 직무연수 2회(진주산업대학교)</li> <li>• 환경캠페인 및 남강변 환경정화활동</li> </ul>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 직무연수 2회(진주산업대학교)</li> <li>• 환경캠페인 및 남강변 정화활동</li> </ul>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 활성화방안 워크숍(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li> <li>• 환경교육 직무연수 2회(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li> <li>• 환경캠페인 및 남강변 정화활동</li> </ul>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 직무연수 2회(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li> <li>• 환경캠페인 및 남강변 정화활동</li> <li>• 환경캠페인 및 등반 정화활동(산청 백마산)</li> </ul>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 직무연수 2회(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li> <li>• 환경캠페인 및 남강변 정화활동</li> <li>• 환경캠페인 및 등반 정화활동(창녕 화왕산)</li> </ul>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 직무연수 2회(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li> <li>• 환경캠페인 및 남강변 정화활동</li> </ul>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 직무연수(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li> <li>• 환경캠페인 및 남강변 정화활동</li> <li>• 환경캠페인 및 등반 정화활동(창녕 화왕산)</li> <li>• 환경교육 워크숍(신진초등학교)</li> <li>• 환경캠페인 및 남강변 정화활동</li> <li>• 환경교육 학술발표회 개최(창녕 유어초등학교)</li> </ul>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남도교육청 도단위 연구회 승인(6월)</li> <li>• 자연생태해설가과정 직무연수 2회(경상대학교 인문대학)</li> <li>• 환경캠페인 및 남강변 정화활동</li> <li>• 환경캠페인 및 등반 정화활동(창녕 화왕산)</li> </ul>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 세미나(진주여자고등학교)</li> <li>• 환경교육 직무연수(경상대학교 인문대학)</li> <li>• 경남학생환경백일장 작품 공모전(추진중)</li> </ul>

### 3. 2008년 주요 활동

경상남도교육청 승인 도 단위 연구회로 올해 처음 출발한 본 연구회는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바람직한 친환경적인 인간상을 육성하기 위하여 회원,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가. 회원 대상

본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총회, 연구회원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개인연구발표대회에도 올해 처음으로 9명의 연구회원이 계획서를 제출해 계속연구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 해에는 회원들의 연구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 많은 연구회원이 계획서를 제출하리라 예상되며 도 교육청 지정과제연구 계획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행사명	일시	장소	주요 내용	비고
총회	2008. 4. 5.	진주여자고등학교	회칙심의, 임원선출, 2008. 활동계획 토의	
연구회원 세미나	2008. 6. 21.	진주여자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이 함께 사는 일본 습지를 찾아서</li> <li>• 봉선화로부터의 추출 물질을 이용한 천연항균 섬유제품 개발</li> </ul>	자료집 발간
개인연구 발표대회	2008. 11. 8.	추후 발표	9명 계획서 제출 및 보고서 준비	



#### 나. 교사 대상

본 연구회원과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회에서는 2000년 이후 계속 환경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받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 여름방학 중에도 40명의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경상대학교 인문대학관에서 7월 28일(월)부터 8월 8일(금)에 걸쳐 실시했다.

연수 주요 내용은 환경 총론, 도시 환경, 지구 환경, 습지 생태, 동물 환경, 랍사르 총회, 우포늪의 생태, 친환경 가구, 발효 환경, 법의 곤충, 생활 원예, 원예 치료, 환경 법령, 습지 바다, DMZ의 생태, 환경 일반상식, 현장학습(강주연못, 곤충 생태관, 재활용시설, 경남자연학습원)으로서 겨울방학 중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 다. 학생 대상

또한 미래 환경의 주인인 초·중·고 학생들에게 자연환경 오염의 심각성과 환경보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 의식을 고취하고자 경상남도학생환경백일장 작품 공모전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9월 16일부터 10월 15일 동안을 공모 기간으로 하고 참가 범위는 경상남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학생이며, 본 연구회 창립기념일인 11월 1일에 시상식을 가질 것이고 수상 작품을 발간할 예정이다.

### 4. 연구회가 나아갈 길

21세기 인류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 최대의 관심사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환경의 파괴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태도와 가치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늘날 일선 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 방면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나, 실제 수업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하기 어렵고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환경교육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 안에서 재량활동시간이나 특별활동시간에 일정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쉽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회에서는 랍사르 협약 총회를 계기로 조성된 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하고 동영상 자료를 제작·보급할 것이며,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환경 보존 의지를 함양할 수 있는 환경교육 방안과 모델을 연구해 나갈 것이다.

# 환경교육의 방향



이 주 희

경상남도교육청 과학담당 장학관

## I. 들어가며

빙하가 녹고 북극곰이 멸종된다는 소식을 뉴스로 듣지만 막상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교육관련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자료가 부족하여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녹색 성장과 에코, 생태, 환경이라는 화두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학교 현장에 적용이 필요한 때이다.

## II. 환경교육진흥법

올해 3월 21일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9월 22일 시행이 된 환경교육진흥법에 대하여 학교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환경교육진흥법의 목적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환경교육의 정의

가.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나.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다.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3. 지역 환경교육계획 수립

제5조에는 환경부와 교과부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지역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게 하였다. 경남교육청도 경남도청과의 간담회와 워크숍 공청회를 거쳐 지역에 맞는 포스트 랍사르 대책과 함께 지역 환경교육계획을 로드맵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5조 ④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4. 환경교육센터

환경부는 환경교육센터를, 도지사는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창녕교육청에서 올해 리모델링하여 초등학교 3학년 모든 어린이가 습지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는 우포생태교육원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포생태교육원은 환경교육센터로 지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와 관련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지역 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환경교육센터와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Ⅲ. 다른 지역 우수 사례

### 1. 제주도 환경교육 의무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환경교육을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교과서 개발과 다양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의 환경교육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다.

### 2. 서울특별시의 준비

서울지역의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획 준비 중이다. 서울의 종합계획은 전국 16개 시도의 종합계획의 샘플이 될 수 있어 기대가 된다.

### 3. 창원 환경수도

창원시 환경수도 만들기 사업으로 창원시청과 창원교육청이 환경교육에 대한 협약을 2007년에 맺었다. 그 후속 사업으로 생태학교 만들기과 초등학교 환경교육 교과서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진행하고 있다.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 최초이면서 가장 내실 있는 환경교육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창원의 사례가 경남 교육에 큰 힘이 될 것이다.

## IV. 경남교육청의 과제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청 및 유관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환경교육 종합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청간의 협의 및 협약

- 가. 경남 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
- 나.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
- 다. 환경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 라.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 연계 프로그램운영
- 마. 환경교육, 탐사르 습지교육, 학교 숲 활용교육, 기후변화와 신재생 에너지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통합적 환경교육 운영
- 바.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학교 환경교육 지원
- 사. 유아 환경교육 강화
- 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환경교육 지침 편성

### 2.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 가. 초·중·고 학교 환경교육 선택 비율 높이기
- 나. 중·고등학교 환경교육 교사 연수 확대
- 다. 학교 환경교육 교과서, 교구·교재 개발
- 라. 학교 환경교육 사이버 콘텐츠 개발 및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 마. 학교 환경교육 동아리 활성화
- 바. 녹색학교(학교 숲 GREEN SCHOOL)와 생태학교(ECO-SCHOOL) 만들기 사업 활성화
- 사. 교사 환경교육 연수 편성 의무화

## V. 나가며

기름값 폭등과 9월 무더위로 온 몸으로 지구의 몸살을 느끼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경남교육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제 경상남도와 20개 시·군의 환경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여러 현안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및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여 경상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 환경올림픽, 람사르총회 개최와 환경경남

박진평

경상남도청 람사르준비기획단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다자간 환경협약인 제10차 람사르총회가 2008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남에서 개최된다.

람사르총회는 3년마다 개최되는 환경관련 국제회의이며 금년 경남에서 개최되는 람사르총회는 10번째 개최되는 총회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에서는 1993년 일본의 쿠시로 총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매우 의미 있는 총회이기도 하다.

참가규모 또한 160여개국 정부대표와 관련 국제기구, NGO 등 2,000여명의 참가가 예상되는 등 역대 람사르총회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제10차 람사르총회 개요

- 명 칭 :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 주 제 :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 (Healthy Wetlands, Healthy People)  
※ 건강한 습지의 보전을 통해 인간의 건강과 풍요로운 삶을 도모하자는 의미
- 기 간 : 2008. 10. 28 ~ 11. 4 (8일간)
- 장 소 : 창원컨벤션센터(CECO, 회의), 우포늪, 낙동강하구 등 국내 주요 습지(현장견학)
- 주 최 : 람사르협약사무국
- 주 관 : 환경부, 경상남도
- 규 모 : 약 2,000명 (160여개국 정부대표, 관련 국제기구, NGO 등)
- 내 용
  - 공식회의 (전체회의, 지역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등)
  - 공식행사 (개회식, 폐회식, 환영·송연, 현장견학 등)
  - 부대행사 (참가국홍보관, 습지IT기술전시, 한국전통문화소개 등)

## ■ 람사르협약과 총회

람사르협약의 정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 이 협약의 목적은 경제적, 문화적, 생물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진 습지의 손실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보전 하는데 있다.

람사르협약이란 명칭은 1971년 2월 2일 이란의 작은 도시 람사르(Ramsar)에서 18개국이 모여 체결하였기 때문에 통상 ‘람사르협약’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현재까지 158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가입국은 자국 내에 1개 이상의 습지를 람사르습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101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했고, 현재까지 8개의 습지(용늪, 우포늪, 장도 습지, 순천만, 물영아리, 두웅습지, 무제치늪, 무안갯벌)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람사르총회는 협약 가입 당사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새로운 실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이다. 제1차 총회는 1980년 이탈리아에서 개최되었고 이후 9차 총회까지 개최 되면서 의제가 매우 다양해졌고, 습지의 가치에 대한 시각이 더욱 확대되었다.



## ■ 환경올림픽, 제10차 람사르 총회

경남도는 람사르총회를 지역사회, 도민, NGO가 함께하는 지역축제로 개최하기 위해, 람사르총회 부분, 습지보전 부분, 인식증진 부분 등으로 나누어 각 부분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일정에 따라 하나 하나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국민들이 습지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인식하고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여 환경선진국으로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 가고자 습지체험프로그램, 생태가이드 양성, 습지 시범학교 지정, 습지 만화·가이드북 제작 등 다양한 CEPA활동을 실시하였고 이번 람사르총회가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북한 대표단 초청을 추진하여 왔다.

습지인식증진CEPA(Communication, Education & Public Awareness) 활동 : 정보교류, 교육, 대중인식증진 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올해는 총회가 개최되는 해로 회의장 조성, 초청, 숙박, 등록, 의전, 수송, 안전, 현장견학 등 환경부, 랍사르사무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준비해 가고 있다.

특히 해외 참가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참가국 서포터즈 (기업 및 단체를 참가국과 연결하여 공항 입국에서부터 지원하는 프로그램)와 자원봉사자(400여명), 홈페이지(<http://ramsar2008.go.kr>)를 운영하고 있다

공식회의는 10월 27일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습지와 건강 등 주요 의제들이 매일 논의되고 2009 ~ 2014년까지 당사국들이 이행해야 할 전략계획도 수립된다.

그리고 총회기간 중에는 “한국의 습지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습지 그리고 빈곤 감소 : 2005년 이후 경과”, “통합 물 관리-향후 10년간의 전망”등 특별발표도 있게 된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10번째 개최되는 총회의 위상에 걸맞게 랍사르 협약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총회선언문과 동아시아랍사르지역센터를 이번 총회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랍사르총회와 별도로 비공식행사로 총회개최 전 4일 국제 NGO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국제 NGO와 일본, 중국 등 아시아지역 NGO, 대륙별 NGO, 국제 NGO단체 등 참여하여 NGO의 관심사항인 CEPA(대중인식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공식행사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할 개회식과 환영만찬 등이 예정되어 있고 총회 참가자들에게 습지와 자연환경, 지역문화 탐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 탐방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총회기간 중 공식투어 (2008. 11. 2)는 우포늪, 낙동강 하구를 비롯한 주요습지와 자연생태 관광지, 문화·유적지가 포함된 8개 코스 (반일, 전일)로 운영되며 비공식투어는 아침 습지산책, 동반자 프로그램 등 총회 전후 투어가 운영된다.

부대행사로 총회 참가자와 일반인 등을 위해 CECO 전시장 내에 각국의 우수 습지와 정책 등을 소개하는 참가국 홍보관을 운영하고 우리나라의 습지와 우수한 습지정책을 IT기술을 응용하여 소개하는 습지 IT기술이 전시 된다.

이와 더불어 CECO 광장 주변에는 연, 장승, 솟대 등 전통문화 체험행사와 더불어 농악 등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도 펼쳐지고 전통 먹거리, 대장간 등 전통장터를 재현할 예정이다.

장 소	내 용
CECO (3층 전시장 회의장 복도)	참가국 홍보부스 중앙부처 및 국내 랍사르등록습지 홍보부스
CECO (육외전시장)	지자체 홍보관(광역), 우리도 시·군 홍보관 도 해외자매 결연도시 홍보관, 습지IT기술홍보관
	랍사르 서포터즈기업 홍보관
	논(사계절) 및 농경문화 전시
	세계 어린이 습지그림 전시
	1~10차 랍사르 홍보관
	습지우편전시회 어린이 습지그림 전시

이외에도 총회가 개최되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인데 창원 성산아트홀과 용지호수에서는 랍사르 축하음악제와 랍사르문화존이, 창원의 집에서는 한국전통놀이 체험이, 창원중앙로 일원에서는 창원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참가자들과 시민, 일반 방문자들을 위해 개최된다.

그리고 우리 지역 대표습지인 우포늪과 주남저수지에는 일반방문자 등을 위한 다양한 생태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반국민들이 환경 습지에 대한 인식증진의 기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방문자센터를 통해 습지의 역사, 문화 등 습지교육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습지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련한 습지와 관련된 전통문화, 생활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볼거리가 현장에서 펼쳐진다.

아울러 습지와 습지 주변에서 생산되는 어류, 식물, 친환경 농산물 등을 소재로 한 먹거리와 함께 지역 특산물도 구입할 수 있다.

- 주요 체험 및 참여행사 -

장 소	기 간	기 간	내 용
CECO	습지우편전시회	10.28~11.4	우편작품 20틀
	한국전통문화마당	10.28~11.3	전시·체험·공연
	전통대장간 재현	10.28~11.4	농기구 제작·판매
	경남공예품전시회	10.28~11.4	공예품 전시(45점)
	야생화전시회	10.28~11.4	국내자생 야생화 전시
주남저수지	창원일요화가회 스케치	11.2	주남풍경스케치(100명)
	주남지역민축제	10.28~11.4	전시·체험·참여
우포늪	청소년 환경음악제	11.1~11.2	공연, 전시
	생태체험 및 법 군민 걷기대회	11.1	참여·체험행사
	지역민으로부터의 초대	10.28~11.4	전통고기잡이 재현, 옛 농사 재현, 전통체험 등
	경남우수 화훼전시회	10.28~11.4	경남우수화훼전시, 우포늪 주변, CECO광장
성산아트홀	랍사르 축하음악회	10.30	동서양 음악, 춤이 조화된 영상음악회
	전국인간문화재축제	10.30~11.2	무형문화재가 참여하는 전통문화이벤트
용지호수	랍사르문화존	10.25~11.26	음악분수쇼, 콘서트, 습지작품 전시·체험 등
시청광장	창원페스티벌	10.25~26	퍼레이드·콘서트·불꽃놀이
도립미술관	랍사르특별전	9.9~11.13	회화·사진·판화·조각(90점 내외)
창원의 집	전통문화놀이체험	10.28~11.4	떡매치기, 다도, 널뛰기, 전통혼례 시연 등
KBS홀	환경도서전시회	10.28~11.4	세계 환경도서 전시(1000점)



- 주요 지역축제 -

행사명	기간	장소		내용
단풍거리축제	11.1~11.2	창원	성산아트홀	개막놀이·콘서트·퍼포먼스
북면온천축제	11.1~11.2		마금산온천	가요·풍물·체험
경남 오페라단 공연	10.23~10.25		성산아트홀	세빌리아의 이발사
가고파 국화축제	10.24~11.4	마산	둘 섬	전시·판매·공연
경남국제음악콩쿠르	10.28~11.4	통영	통영음악당	첼로·바이올린·피아노 경연
김해분청도자기축제	10.30~11.4	김해	진영	도자기 전시·체험·판매
기획 특별전 낙동강	7.29~11.9		김해박물관	특별기획전시(유물 300점) 낙동강 역사자료 전시
해외민속공연 및 부곡온천제	10.28~11.4	창녕	부곡일원	온정제·산신제, 해외예술공연단 9개 공연
창녕양파·장류축제	10.28~11.4			가공식품, 특산품 전시

### ■ 환경경남 브랜드 기반 구축

경남도는 제10차 람사르총회의 유치를 계기로 도내 산재한 습지의 현황 조사와 습지 복원·관리계획을 수립한 중·장기 습지보전 정책을 마련하였다.

경남도의 10년간(2006년~2015년)의 습지정책을 담고 있는 『경상남도 습지 로드맵』에는 도내에 분포하는 습지 166개소(내륙습지 103, 산지습지 13, 연안습지 50)의 목록을 구축하고 지역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습지관리계획, 주요 습지의 복원 및 관리대책 등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지역 습지보전 인프라 구축과 국가 습지보전의 모범적 사업을 위해 국가습지센터 건립, 동아시아람사르습지 센터 유치, 우포늪, 주남저수지 등 도내 주요 습지보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습지센터는 창녕군 우포늪에 건립하여 습지복원, 습지센터·연구원, 체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동아시아 지역의 습지문제 해결과 교육·훈련을 전담할 기구로 이번 람사르총회에서 인준을 거쳐 설립 될 예정이다.

### ■ 람사르총회의 기대효과

이번 람사르총회는 경남도 및 우리나라의 우수 습지와 모범적 습지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함으로써 환경선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국민들의 습지보호에 대한 인식 또한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국가습지센터 건립과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유치로 국제적인 습지전문교육 기반이 구축되어 국제적인 생태관광 중심지로 발전 될 것이다. 또한 람사르총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환경행사를 지속 유치하여 국제 환경 컨벤션산업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수행 해 나갈 것이다.

경남도는 이러한 시너지효과를 토대로 환경을 경남의 새로운 메인브랜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고, 향후 환경 경남브랜드 형성으로 경남의 관광산업과 경제,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전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람사르협약 미 가입 국가인 북한의 람사르 총회 참석과 아울러 비무장지대의 현장견학을 통해 이번 람사르총회가 남·북의 생태계를 다시 연결하는, 남과 북이 분단이 아닌 평화의 상징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 『화포습지 3H활동』을 통한 습지보전 의식의 확산



박금남

김해 한림초등학교 교장

낙동강 배후 습지이며 국내 최대의 하천형 습지인 화포습지는 본교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태학적 보전 가치가 높아 습지교육에 있어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본교에서는 ‘건강한 아이들(Healthy Children), 건강한 화포습지(Healthy Hwapo Wetland), 건강한 지역사회(Healthy Community)’를 만드는 『화포습지 3H활동』을 전개함으로 습지보전 의식을 정착하고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 화포습지와 함께 커가는 건강한 아이들(Healthy Children)

교실과 생태연못, 화포습지에서 교과별 습지탐구학습을 실시하였다. 교실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습지 이해와 보전교육을 펼쳐 학생들이 습지에 대한 관심과 보전의식을 기르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환경특강, 과학기술엠베서더 초청강연, 생태체험학습, 푸름이이동환경교실, 어린이탐사르환경교실 등을 열어 학생들에게 습지와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태도를 길러 스스로 습지를 아끼고 보전하는 의식이 싹틀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화포천을 고향으로 둔 노무현전대통령과 화포습지에서 여러 차례 습지탐사와 정화, 지킴이활동을 함께 하면서 고향 습지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고 탐구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습지공개수업



습지캠프



화포습지 가이드맵

현장 체험 중심의 습지교육을 위하여 본교에서는 습지를 주제로 1박 2일의 야영수련활동을 화포습지 현장에서 펼쳤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습지탐사, 정화, 지킴이활동을 화포습지에서 벌여 학생들은 습지의 소중함을 몸으로 느끼고 스스로 습지보전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다질 수 있었다. 또한 지역의 유치원, 초등학생, 교사, 도내 타 지역의 학생들이 화포습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습지체험활동을 지원하였고, 습지캠프도 운영하였으며, 김해시청의 도움으로 2학기에도 습지캠프를 열 예정이다.

체험과 활동 중심의 습지교육을 해나가면서 활용한 각종 학습자료들을 바탕으로 본교에서는 화포습지 관련 가이드맵과 체험학습장을 처음으로 개발하여 일선에 보급하고 있다. 김해시와 기업서포터즈인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학습자료들은 랍사르총회 이후에도 습지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데 작은 기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우리 손으로 만드는 건강한 화포습지(Healthy Hwapo Wetland)

전교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화포습지 정화활동과 함께 학년별로 돌아가며 화포습지의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불법폐기물을 신고하면서 학생들은 습지 훼손을 안타까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화포습지 정화활동은 습지 현장 체험학습, 습지도보탐사, 습지캠프, 습지야영수련활동 등에서도 빠지지 않는 활동으로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각계의 동참과 지원도 활발해지고 있다.

단순히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데서 나아가 화포천환경감시단, 각종 봉사단체, 김해시청과 함께 화포천의 불법폐기물 걷어내기, 화포습지에 참계치계와 메기치어 풀어주기, EM흙공 만들어 던져넣기 등의 적극적인 화포습지 살리기에 힘을 모아왔다.

습지생태조사와 모니터링, 오염정도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화포습지 지킴이활동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습지지킴이, 낙동강환경감시단 등이 함께 꾸준히 해오고 있다.



화포습지 정화활동



메기치어 방류



화포습지모니터링

## 함께 나누는 건강한 지역사회(Healthy Community)

흙속의 진주처럼 지역주민들도 잘 모르는 소중한 화포습지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난 4월에는 김해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연지공원에서 화포습지 홍보체험관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8월부터는 학생들이 손수 제작한 화포습지와 랍사르총회 홍보UCC를 계속 상영하고 있어서 화포습지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시민들이 알아가면서 습지보전의식도 함께 커가고 있다.

더불어 학생들이 제작한 화포습지UCC 7편을 경상남도 주최 2008랍사르총회 개최기념 영상콘텐츠공모전에 출품하여 습지와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고, 그 중 2편이 입선되기도 하였다.

화포습지의 면모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습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기 위하여 본교의 습지교

육 및 습지체험활동을 학교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에 적극 홍보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본교의 습지교육 활동이 신문과 인터넷매체, 도교육청, 방송 등에 70여 차례나 보도되었다. 최근에는 마산MBC 방송국의 취재로 화포습지에서 ‘람사르퀴즈OX’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많은 도민들이 TV를 통해 화포습지를 새롭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화포습지 체험홍보관



습지활동 보도내용



마산MBC 습지취재

## 체험 위주의 습지교육에 앞장서는 한림초등학교는

푸르른 화포습지와 녹색학교로 건강한 삶을 가꾸는 우리 고장의 미래이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한림들과 화포습지, 그리고 학교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물새와 나무, 물풀과 들꽃을 탐구하는 학생으로 커가는 나날을 열어가고 있다.

‘소중한 김해화포습지는 지역 사회와 함께 한림초등학교가 앞장서서 지켜 갑니다.’



# 지역환경단체와의 연계 체험활동을 통한 환경의식 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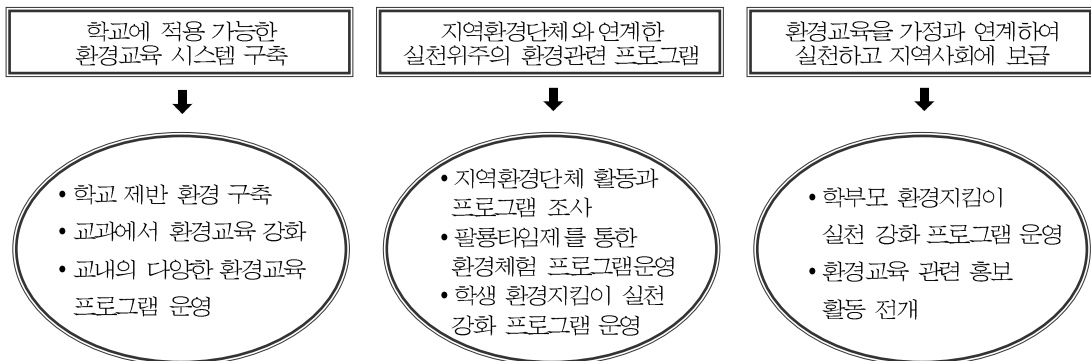
강인숙  
창원 팔룡중학교 교사

## 1. 환경교육과의 만남

본교는 개교이후 전일제로 운영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인 ‘팔룡타임제’를 통해 2006학년도까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경남풀뿌리환경교육정보센터』, 『도청자연학교』, 『낙동강유역환경청』, 『녹색경남21』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환경관련 체험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바 있다. 이에 2007년부터 2년간 환경부과제수행 도지정 환경교육시범학교로 지정되어 팔룡타임제를 통한 지역환경단체와의 연계 체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 체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천가능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함으로써 환경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환경교육 살찌우기

환경교육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과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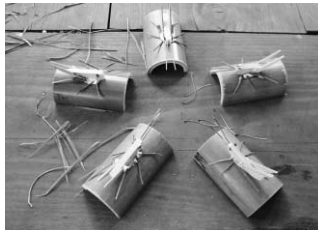
### 3.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

학교에 적용 가능한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경게시판을 설치하고, 교과에서는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접근을 통한 환경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교내 전교생들이 참여하는 환경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환경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지역환경단체와 연계한 환경체험 프로그램으로 1학년은 환경정화활동을 시작으로 나눔, 비움, 베품을 실천하는데 기초가 되는 빈그릇 운동을, 2학년은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고 습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주남저수지 생태탐사와 꽃과 나무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터전을 마련한 작은 곤충 및 동물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도청 자연학습을, 3학년은 자연에 있는 자원을 재료로 자연에서 생활하는 동식물을 만들어 보는 나무공예와 자연을 벗 삼아 자연과 하나 되어 보는 체험환경교육을 실천하였다. 또한 학생환경지킴이와 학부모환경지킴이를 조직하여 환경체험활동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을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체험을 통해 더불어 사는 의미를 배웁니다.



환경교육 게시판



자연물로 만들기



환경 사진전



천연염색



빈그릇 운동



주남저수지 생태체험

### 4. 환경교육 활동 마무리

지역환경단체와의 연계 체험활동을 통한 환경의식의 함양이란 주제로 2년차 시범학교를 운영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교내의 다양한 행사 활동과 홍보활동으로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지식, 태도, 기능, 참여 의식이 향상되었다.
- 2) 교직원 연수와 교과에서 다양한 환경교육 접근을 통해 교사들의 환경의식이 향상되었으며 아울러 수업시간에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가르치게 되었다.
- 3) 지역환경단체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지역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가짐으로써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4)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명 존중의 태도로 이어지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환경체험 활동을 수행하면서 작은 벌레나 풀 한포기에도 학생들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여유를 보였다.

5) '음식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운동을 통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앎으로써 잔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6) 환경지킴이 활동을 통하여 '환경과수꾼'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배우고, 다른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환경과수꾼'이라는 생각을 끄집어내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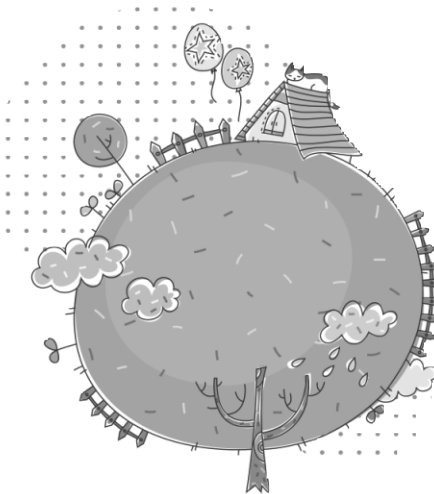
7) 2008 창원 세계 탐사르 총회를 맞이하여 학교와 환경단체가 유기적 협조를 통해 환경문제를 공유하면서 환경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임을 인식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앞으로 효과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학교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실천적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둘째, 환경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교육 강사의 양성이 필요하며,

셋째,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마음 놓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 및 지역사회의 관심과 예산이 지원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자연친화적 태도 함양



김 동 욱  
사천 삼천포초등학교 교사

올해는 환경을리픽이라고 불리는 제10회 람사르 총회가 창원에서 개최 된다. 그래서 환경과 습지, 생태에 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 작년(2007년)에 아름다운 학교 운동 본부와 중앙일보에서 주최하는 아름다운 학교 경영자 부분의 대상을 차지한 우리학교는 전국 최초로 2008년 경상남도교육청 지정 생태 교육시범학교에 선정되었다.

이에 본교는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자연친화적 태도 함양」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다음과 같은 알찬 생태 시범학교 운영을 추진하였다.

## 1. 테마별 자연생태 체험활동 전개

### 가. 『자연과 대화』를 이용한 탐구활동

『자연과 대화』라는 생태체험기록장을 가지고 특별활동, 재량활동, 점심시간과 방과 후 시간에 학교 여러 곳의 테마별 자연생태 학습원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등 다양한 생태 체험을 하였다.



자연과 대화



자연과 대화 기록모습



자연과 대화 작성



**나. 생태 체험활동(4월 17일)**

생태체험과 관련 있는 사천 곤양의 비봉내 마을 대나무 숲 체험, 고성 상족암 갯벌체험, 남해, 나비 생태관을 체험하고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 알았다.



대나무 숲 체험(5, 6학년)



상족암 바다 체험(3, 4학년)



나비 생태관 체험(1, 2학년)

**다. 생태 체험 사진 촬영 대회(4월 22일~5월 30일)**

학교의 자연환경 관찰을 통해 주변 생물을 애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며,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생태 체험 사진 촬영 대회를 개최하였다.



학부모 대상사진(조요한)



학생 대상사진(배예림)



교사 대상사진(차차훈)

**2. 우리 고장의 자연생태 체험활동**

**가. 삼천포 바다 생태 탐구활동**

생태 체험반 학생을 중심으로 삼천포 부둣가와 갯벌을 중심으로 바다 생태 탐구활동을 실시하였다.



사천 금문 갯벌



사천 광포만 갯벌



사천 실안 갯벌

## 나. 흙 사랑 실천 운동

생태 체험반 학생과 학습 도움반 학생을 중심으로 고구마, 고추, 호박, 옥수수 등 농작물과 국화를 직접 심고 기르게 하여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재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흙 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학습도움실 텃밭



재배한 식물 수확



자연학습원 고추 재배

## 3. 다양한 생태체험 행사 운영

### 가. 환경의 날(6월 5일), 환경보전 주간 운영

6월 5일 제13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학년별로 학예행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기는 환경의 소중함이나 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글짓기는 아름다운 꿈, 만남, 학교란 주제로 참여하였다.



환경계기교육 동영상시청



환경사랑 글짓기



각산 정화활동

### 나. 수남 가족 어울림 생태체험 한마당(5월 7일)

학교 숲 가꾸기 프로그램에 의해 조성된 아름다운 교정에서 재학생들과 동문, 학부모,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수남 가족 어울림 생태체험 한마당을 통하여 학교를 사랑하는 애교심을 고취시키고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였다.



도자기 이름표 만들기



대나무 피리 만들기



꽃그림엽서만들기

**다. 농농사 체험하기(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본교 내에 작은 습지를 마련하여 농농사 체험을 하였으며 벼의 성장 과정 관찰과 가을의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농농사 준비



빨간 표시에 맞춰 심기



벼의 성장

**라. 생태영어캠프(6월 18일~19일)**

매년 해오던 영어 캠프를 생태와 관련지어 학생들이 다양한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1휴 1교 자매 결연을 맺은 남해 편백 자연 휴양림에서 생태 영어 캠프를 실시하였다.



편백 휴양림 삼림욕



1휴1교 자매결연



나무 목걸이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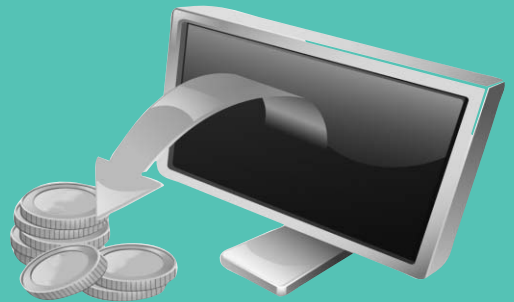
2008년 3월 1일부터 1년간 지속될 생태시범학교 운영으로 생태·환경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교사와 학생이 같이 느끼게 되어 자연 환경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특별활동, 봉사활동, 테마체험학습, 환경탐사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생태 환경보전 의식의 내면화에 기여하며, 자연보호에 관한 경각심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전/문/가/초/대/석



신 동 원  
금융결제원 창원지부장

## 알아두면 편리한 금·용·정·보(3)



###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신청

청약통장 가입고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택청약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당첨결과 확인, 주택청약제도 안내 및 각종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청약사이트(www.ap2you.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약계좌 중복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청약계좌관리업무, 청약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당첨자선정(전산 추첨)업무 및 이종당첨자 등 부적격 당첨자를 검색하여 건설사와 참가은행으로 통보하기 위한 당첨계좌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2000년 3월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로부터 당첨자 전산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첨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통지하여 청약통장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건설사에는 부적격당첨자를 통지합니다.)

인터넷청약사이트에서는 인터넷으로 신규분양 아파트를 청약신청<sup>1)</sup>하고 당첨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주택청약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동산114와 협조하여 분양정보, 부동산 관련 뉴스, 전국 아파트 시세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서비스 FAQ, 청약안내,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및 청약가점계산하기, 당첨사실조회 서비스 등을 마련하여 청약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국번없이 1369번으로 전화하여 신규분양 아파트의 당첨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주택청약 ARS 서비스도 갖추고 있습니다.

1)인터넷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고객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국민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은 금융결제원 인터넷청약사이트를 이용함

청약통장<sup>2)</sup>은 1인 1통장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이 참가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계좌개설 요청시 참가은행이 실시간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결제원에 조회한 후 신규계좌를 개설해 주는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가은행이 접수한 청약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택의 공급세대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당첨자(전산추첨)를 선정하는 업무가 있으며, 재건축·재개발조합 및 오피스텔의 동호수 추첨(전산추첨)업무도 있습니다.

## 인터넷지로 이용고객 지로대금 신용카드 납부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2007년 9월 21일부터 인터넷지로 이용자들은 지로대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서 지로대금은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사간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지로 이용고객들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이체와 신용카드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할부납부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로대금은 BC카드사와 KB(국민)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기관에서 수납하는 지로대금에 국한되며, 동 기관들은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관 및 신용카드의 종류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인터넷뱅킹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전자상거래의 안전핀 – yessign(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문서의 위조와 변조를 막기 위해 공인인증기관(CA, Certificate Authority)이 발행하는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법적수단)입니다. 금융결제원은 2000년 4월 정보통신부(현,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예스사인(yessign)이라는 브랜드의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공인인증기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약 1,700만건의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었으며 이중 금융결제원이 약 1,200만건을 발급하였습니다. 금융결제원이 발급하는 예스사인(yessign)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인터넷 주택청약, 인터넷보험,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 정부 민원업무 등의 용도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은행 등 전국의 금융기관 홈페이지(인터넷뱅킹)를 통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2008년 4월 4일부터 공인인증서를 휴대폰 등 무선단말기로 이동 저장하여 무선단말기 내에서 전자서명이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공인인증서 기반 VM<sup>3)</sup>뱅킹 서비스(Mobisign)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 055-267-6141 yohan64215@hanmail.net

2) 청약예금, 청약부금 및 청약저축 3가지가 있는데,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민간건설사가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청약저축은 대한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음

3) VM(Virtual Machine) : 응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휴대폰 등에 설치되는 별도의 소프트 웨어

전문/가/초/대/석



강 명 상

창원탐신경외과의원 원장

# 걸·강·상·식(고) 요통에 대해



## 1. 머리말

우리나라 인구의 80%는 일생에 한 번쯤은 심한 척추 통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나이들면 누구나 허리가 아픈 거지 뭐’ 하면서 모든 것을 나이 탓으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술과 담배, 잘못된 생활 습관, 무리한 운동 등으로 젊은 층에서도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는 척추에 대한 병태 생리와 요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보고 요통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2. 요통의 원인

요통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디스크 탈출증 및 디스크 내장증, 척추관절 이상으로 인한 척추관절증후군, 척추의 뼈가 부러지는 척추의 압박성 골절, 척추관 협착증, 허리근육통, 디스크 수술 후 요통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대할 수 있는 요통 환자의 원인으로는 요추부 염좌를 들 수 있으며, 급성형과 만성형으로 구별됩니다. 따라서, 요통의 원인 중에 임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 급·만성 요추부 염좌에 대해

급성 요추부염좌는 요천추부에 직접 외상을 받거나 무거운 물건을 불안한 자세에서 들어 올릴 때, 격렬한 운동, 추락사고 등에 의하여 발생되며, 요천추부 근육의 강직에 의한 통증으로 불편해지고, 대부분 연관통이 둔부와 서혜부, 대퇴부 후 측방으로 퍼지나 슬 관절이하로 방사되는 통증은 드물며 심할 때는 근육강직과 통증으로 인하여 꼼짝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급성기에는 요천추부 근육강직 때문에 허리를 신전할 수는 있으나 앞으로 굽히는 동작이 어렵고 근육강직이 한쪽에만 있을 때는 반대측으로 척추측만기 일어나기도 합니다. 임상에서는 급성형보다는 만성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만성 요추부염좌는 요통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형은 오랜 기간동안 요천추부에서 동통의 완화와 악화

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형으로서 대부분 나쁜 자세, 변비, 영양불량, 불충분한 휴식, 운동선수, 가정주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요천추부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발생합니다. 동통은 급성형보다 심하지 않고 동통부위도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불규칙하게 반복적으로 재발하고, 오래 지속되며, 전신피로 특히 요천추부의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허리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동통이 유발되므로 가능한 허리부분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만성형의 가장 많은 원인은 척추 후관절 증후군에 의한 것이 가장 많으며, 신경학적 또는 방사선학적으로는 특이한 이상소견이 없으나 간혹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불안정 소견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나. 치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요추부염좌의 치료는 보전적으로 행함이 원칙입니다. 급성기 때의 통증이 심할 때는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근이완제와 진통제를 복용하고, 따뜻한 물이 들어있는 욕조에 물을 담그거나 국소 온열요법, 마사지 등을 시행하고 동통부위에 국소 마취제를 주사하거나, 허리 근육 운동을 삼가야 하며, 활동할 때 동통이 심한 경우에는 척추보조기를 착용하면 효과를 봅니다. 만성형의 경우에는 체중을 감소시키고, 허리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운동이나 작업을 피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 바른 자세를 취하는 등 요천추 염좌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급성형이나 만성형 어느 경우든지 보조기를 6주 이상 계속하여 착용하는 것은 허리근육을 약화시키므로 장시간의 계속 착용은 피해야 합니다.

### 3. 요통에 좋은 운동

요통에 좋은 운동에는 어떤 것이 좋을까. 즉, 허리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영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속 걷기나 자전거 타기, 산보나 가벼운 등산, 조깅 등의 운동도 시행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통 환자들이 되도록 피해야 할 운동도 있는데 . 특히 골프, 볼링, 테니스 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허리를 비트는 동작이 오히려 요통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운동은 요통의 정도나 신체 적응도를 살펴 적절한 강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 허리 근력 강화 스트레칭방법

#### 가. 무릎 가슴 닿기

바로 누운 자세로 양다리를 접어 몸통 쪽으로 당기며, 이때 상체가 들리지 않도록 하고 양팔로 허벅지를 잡아 눌러줍니다

#### 나. 상체 늘리기

엎드려 누운 자세로 양손으로 목을 지탱하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이때 시선은 정면을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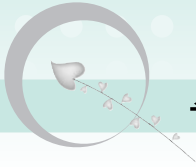
#### 다. 고양이 등 만들기

양손과 무릎으로 몸을 지탱한 자세로 허리를 아래로 내려 오목하게 유지했다가 다시 위로 볼록하게 만드는 것을 반복합니다.

#### 라. 팔 다리 교차 들기

양손과 무릎으로 몸을 지탱한 자세로 왼팔과 오른쪽다리를 들어 평형을 유지하며, 이때 팔과 다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요통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즉발성 치료보다는 일상적인 운동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치료법이며, 특히 만성 요통도 치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절한 운동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알아야, 음악시간이 제대로 즐겁다



송 예 순

창원 신월초등학교 교사

초등학생 중에 음악시간이 싫다고 말하는 아이들은 다른 과목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음악적 개념조차 구분이 안되거나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고 초등학교 1학년이나 6학년이나 음악적 소양이 비슷하다고 느낄 때도 종종 있어 안타깝다. 뿌리가 튼튼한 가운데 아름답리 나무가 되는 자연의 이치는 기초 튼튼을 외치는 도구교과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고 본다. 아는 만큼 들리고 보이므로 음악시간이 진정 즐거운 시간이 되려면 먼저 학생 자신의 기초와 기본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다. 아동이 쉽게 그리고 알고 싶게 하기 위한 출발은 어쩌면 기초와 기본 교육이 교사 자신의 의무임을 매순간 잊지 않는 일이라 본다.

단위 수업에서 초점을 맞추고 반드시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보면,

첫째, 악곡에 담긴 음향 연결 및 배합의 아름다움이나 의미를 발견하도록 이끈다. 둘째, 악곡의 구성 요소나 생성 원리를 한 가지라도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갖가지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학생들이 음악의 개념을 이해하거나 원리를 발견했을 때, 그들의 어휘로 그것을 정리, 정의하게 한다. 넷째, 가창, 기악, 창작 중의 어느 것이든 한 가지의 음악 행위 기능을 새롭게 습득하거나 전보다 향상되도록 연습시킨다. 다섯째, 익힌 기능을 이용하되 자기 방식으로 개성있게 표현하게 한다. 여섯째, 학습한 악곡이나 활동에 대한 느낌 또는 음악의 역할, 의미, 가치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토론하게 한다.

### ◀ 음악을 알고 즐기도록 돕기 위한 Tip ▶

#### 1. 음악급수표 :

지도서와 교과서를 참고로 하여 해당 단원(제재)내에서 음악의 기초와 기본 요소를 추출하여 모듈 필수 도달 목표로 정한 후, 아동 개인별 공책에 부착하여 성취여부를 체크한다. 기초와 기본은 교사가 전체학습을 통하여 지도 후 모듈별로 익힐 시간을 부여하면 협동은 물론 음악적 활동을 충분히 체험하게 된다.



## 2. 악보는 보물섬 :

확대악보에서 알아낼 수 있는 음악의 기초와 기본에 해당하는 배움거리들을 모둠별로 또는 개인별로 탐색, 발문을 통하여 아이들의 입으로 발견한 것을 말하게 하여 발문의 기쁨과 음악 개념의 인지를 높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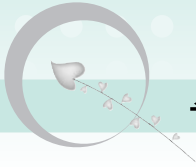
## 3. 가락 창작 지도 방안

### 가. 필요한 조건 안내하기

- ① 8마디의 가락짓기를 할 때의 화음순서 안내 (예:1,4,1,5,1,4,5,1 화음순)
- ② 시작과 끝은 1도 화음으로 하여 맺는 느낌이 나도록
- ③ 넷째 마디는 5도 화음으로 만들게 하여 계속되는 느낌이 나도록
- ④ 으뜸음으로 마무리하되 그 앞음은 5도 화음을 배정하도록
- ⑤ 나머지 마디의 화음은 1, 4, 5도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배정하도록

### 나. 창작 활동 순서 제시(모둠 및 개별 어느 활동으로도 가능함-학급상황고려)

- ① 8마디 곡에 어울리는 노랫말을 모둠수만큼 미리 준비한다.
- ② 화음의 흐름을 정하여 순서대로 먼저 오선지 위에 표시한다.
- ③ 노랫말의 느낌과 글자수에 맞게 리듬을 찾아 정한다.
- ④ 노랫말에 어울리게 가락을 진행시켜 기보법에 맞게 그린다.
- ⑤ 창작한 곡을 함께 합주(악기별 모이기 및 악기별 튜닝후)하며 즐긴다.
- ⑥ 연주한 것을 녹음하여 들려 주고, 소감과 더 나은 방향을 자연스럽게 나눈다.



## ‘개념 학습장’을 활용한 경제 수업

정 창 욱  
함양고등학교 교사

개념은 사회과 학습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높은 차원의 사고력 학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념학습의 개념들은 현실사회와 직접 관련되는 것들로써 그 특징이나 사례 파악을 통해 개념의 의미를 바르게 형성할 수 있으며,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개념학습 모형에는 고전모형, 원형모형, 예모형, 상황모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에 따른 교수단계는 문제제기 - 속성검토 - 예(例)와 비예(非例)검토 - 개념분석 - 적용 - 평가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개념 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한 두 차례의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1. ‘사회 참여’를 주제로 한 개념 수업

우선, 도입 부분에서는 동기 유발을 위해 동영상 활용하였는데, 대략 2분 이내의 분량을 캡처하여 자료를 만들었다. (VOD recorder 프로그램 활용) 그리고 수업 질차는 인쇄하여 칠판에 붙여서 학생들이 수업 흐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돌발 퀴즈’를 제시하여 역동적인 수업 진행이 되게 함으로써 수업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대체적으로 교실 수업에서 남학생들은 발표하는 행위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인기 연예인의 사진을 자신의 얼굴에 대고 부끄러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표하게 하였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발표 모습을 녹음 파일로 미리 만들어 들려주고 발표 형식에 맞춰 발표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고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예 : 나는 ~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 때문입니다. 그러나 ~ 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수업 비평을 해 보면, 한 시간 수업 분량에 많은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점과 학생들의 발표 내용에 대한 반론이 부족하여 단지 개념만 이해하고 고차원적 사고 능력 배양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2. '개념 학습장'을 활용한 '국내총생산(GDP)' 개념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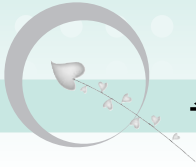
사회과 교사들은 경제 개념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고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개념 학습 모형에 '개념 학습장'을 활용한 수업 모델을 착안·적용해 보았다. 수업 전,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판서 대신 개념 학습장을 제작하였다.(초록색 부직포가 붙어 있는 스티로폼을 문방구에서 구입하여 6면의 접기식 책을 만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모둠별 개념 학습지를 나누어 주고 모둠장이 주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하게 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모둠의 결과물은 코팅지에 적어 개념 학습장에 붙이게 하였다.

수업 진행에 따른 학습 활동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b>학 습 활 동 내 용</b>	<p><b>【동기 유발 및 문제 제기】</b> 세계국부지도와 경제활동지표 제시</p> <p><b>【문제 확인】</b> 방송 뉴스 동영상 시청하고 소감 발표</p> <p><b>* 아래 단계부터는 학습의 결과물을 발표 후 개념 학습장에 기록하게 함</b></p> <p><b>【속성 제시 및 확인】</b> 국내총생산 개념에 대한 전체 학습 - PPT 활용</p> <p><b>【사례 검토】</b> 1주제 : 나라마다 GDP가 다른 이유 2주제 : 국민 소득의 변화</p> <p><b>【개념 분석】</b> 1주제 : GDP와 GNP비교, 2주제 : 국내총생산 계산</p> <p><b>【적용】</b> 주제 : 국내총생산의 한계</p>
--	--

'국민총생산(GDP)'에 대한 경제 개념 수업은 앞에서 소개한 수업 사례처럼 수업의 형식은 유사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개념 이해 정도는 훨씬 효과가 있었다. 대단한 수업모형의 변화는 아니더라도 교사와 학습자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활발한 수업 참여와 흥미를 이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이 개념 학습 방법의 최선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단지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이다. 아무리 좋은 수업방법이라도 교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좋은 수업이 되기 어렵다. 그 노력하는 모습이 묻어나는 수업에서 학생과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학습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 수·업·기·술·나·누·기

### 함께 나누어요! - 정보교환 구조 -

이진옥

마산 월포초등학교 교사

협동학습의 정보교환 구조는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서로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이다.

동시다발적인 정보교환 구조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 번에 한사람씩 발표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서로의 정보를 나누는 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1. 3단계 인터뷰 : 나는 스타 너는 기자 함께 묻고 답해요

4명 한 모둠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되지만 이보다 더 많거나 적은 수로 구성된 모둠에서도 사용된다. 인터뷰의 내용은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종종 학습 단원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거나, 역사나 문학 등에서 한 역할을 맡아 인터뷰를 진행하여 인물의 성격을 알아내는데 효과적이며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밝힐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① 1단계에서 학생들은 두 사람씩 짝을 짓는다. 한 사람은 인터뷰의 주인공이 되어 인터뷰를 받는 사람(스타)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인터뷰를 하는 사람(기자)이 된다. ② 2단계에서 서로의 역할을 바꾼다. ③ 3단계에서 돌아가며 말하기로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것을 모둠원에게 이야기 한다. ④ 모둠 내에서 발표한 내용을 질문하고 답하기, 기자처럼 발표하기 또는 신문이나 책자로 만들어 학급 전체에게 발표하게 하여 확인 학습을 할 수도 있다.

#### 2. 칠판 나누기 : 모든 교과와 단원 정리 단계에서 칠판 정리용으로 좋아요

각 모둠의 생각들이 기록되는 동안에도 계속 과제를 해결 할 수도 있으며 한 모둠의 생각이 다른 모둠의 토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① 교사가 칠판을 모둠 수만큼 영역을 나눈다. ② 교사가 학습 과제를 제시한다. ③ 각 모둠에서

학습과제를 해결한다. ④ 각 모듈의 기록이가 동시에 나와서 자기 모듈 해당 영역에 과제 내용을 기록한다. ⑤ 교사가 각 모듈 발표 내용을 비교하며 설명한다.

### 3. 셋 가고 하나 남기 : 모듈 여행을 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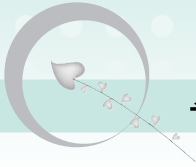
모듈 대표가 전체 학급에 나와 발표하는 것보다 집중도가 높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발표하고 질의 할 수 있어서 깊이 있는 과제 해결을 할 수 있다. 다른 모듈의 발표를 잘 들었는지 퀴즈로 확인하거나, 활동 중간에 대표(발표자)를 바꾸어 주어 대표(발표자)의 부담을 줄여 줄 수도 있다.

① 모듈별로 과제를 해결하고 기록한다. ② 대표(발표자) 한 명을 선정한다. ③ 대표(발표자)를 제외한 모듈원들이 다른 모듈으로 간다. ④ 대표(발표자)는 다른 모듈에서 오는 세 사람에게 자기 모듈의 학습 결과를 설명한다. ⑤ 다른 모듈으로 이동해서 설명을 듣는다. ⑥ 세 사람은 모듈으로 돌아와 다른 모듈에서 배운 것을 대표에게 알려 준다.

### 4. 모듈 동심원 :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어요

동시다발적인 원리를 적용하면 시간은 반으로 줄이고 효과는 2배 이상 거둘 수 있으며, 모듈 동심원에서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에 참여자로 활동하게 된다.

① 각 모듈을 안팎으로 두 겹의 원으로 서게 한다. ② 안의 모듈과 밖의 모듈이 서로 마주 본다. ③ 5분 동안 안의 모듈이 밖의 모듈에게 발표한다. ④ 돌아가며 말하기로 발표에 대한 감상을 말한다. ⑤ 바꾸어 다시 5분 동안 밖의 모듈이 안의 모듈에게 발표한다. ⑥ 돌아가며 말하기로 발표에 대한 감상을 말한다. ⑦ 발표와 감상을 들은 후 개선 분야를 토론하고 다시 모듈을 바꾸어 앞의 방식대로 발표한다.



##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기술 지도(5)

- 학습기술지도 프로그램(마지막호) -



임 경 미  
양산 중부초등학교 교사

### 4. 시험처치 학습기술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취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는 그들의 시험을 효율적으로 치르게 해주고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기술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all & et al, 1990)

이러한 시험처치 기술은 시험 준비 학습기술과 시험 보기 학습기술 그리고 시험 불안 대처 기술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 가. 시험 준비 학습기술

체계적인 시험계획, 시험내용과 유형의 확인, 교과서와 노트 복습하기, 자기 시험하기, 그룹 스터디를 통한 정보교환, 시험 준비 정도에 대한 점검 등이 있다.

#### 나. 시험 보기 학습기술

계획적인 시간 사용, 시험도구 준비 및 여유있게 도착하기, 문제풀이 요령, 시험 유형별 전략 등 있으며, 이 중 다음에 소개하는 문제풀이 요령과 시험 유형별 전략을 숙지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문제풀이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감독교사의 지시사항을 주의해서 듣는다.
- 2) 시험지의 지시사항을 주의해서 읽는다.
- 3) 여백에 핵심 내용이나 공식을 써 둔다.
- 4) 유의미한 지시어에 유의한다.( 결코, 항상, 거의 등)
- 5) 쉬운 문제를 먼저 풀이한다.
- 6) 객관식 문제를 먼저 풀이한다.

- 7) 답을 모르면 표시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풀이한다.
- 8) 한번 쓴 답은 그 답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 때만 고친다.

다음으로 시험 유형별 전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진위형 : ‘항상, 모두, 전혀’ 등은 틀린 진술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진술에 유의하고, 문장 내의 잘못된 논리로 진술될 경우 틀린 문장이 되며, 진술문이 길수록 틀린 내용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 2) 선다형 : ‘~이 아닌’ ‘가장 올바른’ 과 같은 지시문에 유의하고, 분명히 틀린 답을 먼저 제거하며, 모든 답지를 다 읽은 후 답한다. 그리고 가장 긴 답지에 유의한다.
- 3) 연결형 : 오른쪽 목록을 먼저 읽은 후, 정답이라는 확신이 드는 문제부터 먼저 제거해 나간다.
- 4) 완성형 : 문제를 여러 번 읽어 핵심어를 찾아내며, 문맥상에서 단서를 찾아본다.
- 5) 논술형 : 시간에 주의해서 계획하되, 개요를 먼저 작성하여 답을 쓴다. 첫 문장은 질문을 다시 한번 써 두는 것이 요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으며, 마무리에서는 결론이나 요약은 재 진술한다. 교사가 좋아하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다. 시험 불안 대처기술

시험이란 고도의 집중과 수행을 요구하는 특별한 조건에서 치르는 것이기에 시험 불안이 수반될 수 있다. 시험 불안은 정서적 불안정,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유발하여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이를 통제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시험 준비 과정에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 2) 긴장을 완화하고 사고를 자극하는 운동을 한다.
- 3)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시험장에 간다.
- 4) 자신이 열심히 공부했고 시험도 잘 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태도를 가진다.
- 5) 아는 문제를 먼저 풀어 자신감을 얻는다.
- 6) 다른 사람의 풀이 속도에 마음 쓰지 않는다.
- 7) 충분한 공부로 자신감을 갖고 임한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 학습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학습기술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본 원고의 참고도서는 변영계 강태용 공저의 ‘학습기술’ 과 변영계 박한숙 공저의 ‘초등학생용 학습기술 훈련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를 중심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 시험 스트레스의 치료제 경남 e-모의고사!



경남교육연구정보원 파견교사 박 동 식

## 1. 시험에 힘겨운 우리 아이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학창시절을 떠올려 볼 때 그 때의 기억 중 시험이라는 단어만은 달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지금 그들은 학생이나 자녀에게 시험만큼이나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학생에게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학생에게 주는 부담감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동시에 잘 보여주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한다.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각종 대중매체의 뉴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이라면 누구나 학생들의 이러한 고충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평소 학생을 성심성의껏 지도하는 것이야 말로 교원으로서의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시험의 부담감에 힘겨워 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하나쯤 소개해 준다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얼굴에 미소 한번 지어지지 않을까 하며 경남 e-모의고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 2. 시험 스트레스에는 경남 e-모의고사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학생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남 e-모의고사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교과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서비스하고 있다. 각 학교마다<sup>1)</sup> 조금씩 서로 다른 시험일정과 학생들의 자유로운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경남 e-모의고사는 연간 4회, 각 회당 약 1개월 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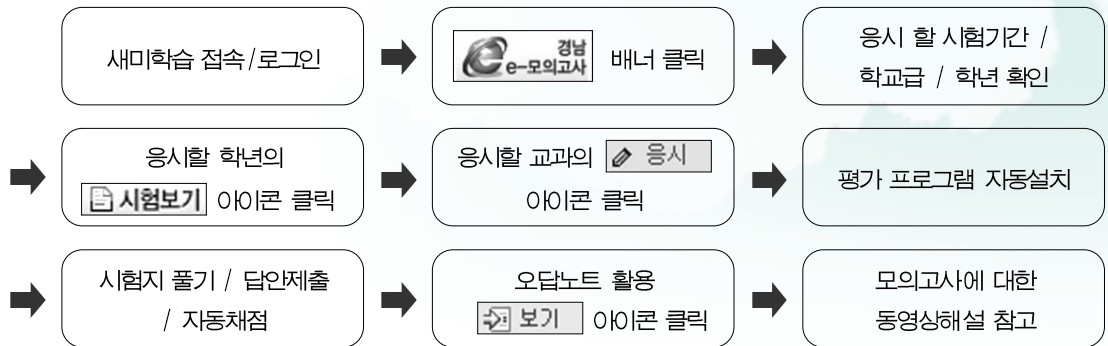
경남 e-모의고사는 학생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의고사의 형태로 미리 한번 쳐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얼마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모의고사에 응시한 학생은 자기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정규 학교시험에서 보다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경남 e-모의고사는 단순히 시험을 풀어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답노트 기능, 문항보관 기능과 동영상 해설 지원을 통해 미리 풀어 본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혼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1) 단, 초등학교 1~2학년은 국어, 수학 2개 교과에 한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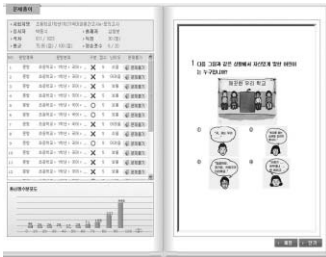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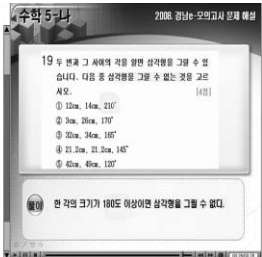



### 3. 경남 e-모의고사! 이렇게 활용해요<sup>2)</sup>

시험 스트레스의 치료제와도 같은 경남 e-모의고사의 실제적인 활용과정과 화면 구성은 아래와 같다.



경남 e-모의고사의 다양한 기능 중 가장 대표적인 3가지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오답노트	동영상 해설	문항보관
		
<p>시험을 친 후 틀린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여 풀어 볼 수 있는 기능이다.</p>	<p>모의고사 시험문제에 대한 동영상 해설을 들을 수 있다.</p>	<p>자기가 보관하고 싶은 문제는 개인 자료함에 따라 보관하여 언제든 볼 수 있다.</p>

### 4. 다함께 만들어 가는 새미학습

새미학습은 학생, 사이버선생님(초·중등교사), 튜터(대학생, 학부모, 지역민)가 다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는 사이버상의 학교이자 교실이다. 이러한 공간에 더 많은 선생님과 더 많은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참여한다면 학생들이 더욱 쉽게 혼자서도 공부하고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새미학습의 유용한 기능 중의 하나인 경남 e-모의고사에 대한 소개를 마친다.

2)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새미학습 및 사이버평가(경남 e-모의고사, 사이버자율평가, 문제풀기), 화상학습에 대한 편리한 활용을 위해 찾아가는 연수, 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교 권 바로 세우기와 몬스터 피어렌트



경남과학교육원 교육연구사 오 세 현

최근 교원들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행·폭언 등으로 교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권 바로세우기’ 운동에 나섰다<sup>1)</sup>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교권 침해사례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몬스터 피어렌트(Monster parents)<sup>2)</sup>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말은 ‘학교에 대해서 도리에 맞지 않는 엉뚱한 요구나 트집을 일삼아 학교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기중심적인 보호자(학부모)’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교사를 허위로 고발하여 교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 사례와 원인, 대책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이런 보호자들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로, 그 발단은 ‘급식비 미납자 문제’였다고 한다. 지불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핑계로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는 보호자가 전국적으로 많다는 통계가 문부과학성 조사에서 발표되자 이런 염치없는 보호자들의 존재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몬스터’라는 이름까지 얻게 된 것이다.

몬스터 피어렌트들은 직접 교사들에게 클레임(Claim)을 거는 경우가 보통이나 최근에는 교장이나 교육위원회 등 보다 권한이 강한 부서에 클레임을 걸어서 간접적으로 현장 교사나 학교에 압력을 가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이런 문제는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보육원에서도 “특정 원아를 우리 애와 놀게 하지마라.”, “학급 편성 때는 특정 아이와 같은 반이 되도록 해달라.”, “TV나 비디오에서 소개 된 교육방법을 도입해라.”는 등 자기중심적인 보호자가 1/4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 몬스터 피어렌트라는 말이 갖는 인상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보호자와 학교의 대립을 선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라고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이 말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런

1) 경남신문 2008년 8월 25일자, 인터넷 판, <http://www.knnews.co.kr/>

2) 교육자인 무코야마 요이치(向山洋一)가 2007년에 명명한 일본식 영어 표현. ‘몬스터’라는 말은 우라사와 나오키(浦沢直樹)의 미스테리 인기 만화 『몬스터』에서 따온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만화에서 주인공 ‘요한’은 유별난 두뇌를 가진 냉혹하고 엽기살인을 일삼는 「몬스터(괴물)」로 등장한다. 이 글은 「프리 백과사전 『위키백과사전(Wikipedia)』에 소개된 ‘몬스터 피어렌트(몬스터ペアレント)’ 중심으로 작성했다.

문제<sup>3)</sup>를 연구해 온 오사카대학의 오노다 마사토시(小野田正利) 교수는 학교와 보호자의 협조야 말로 공교육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몬스터 피어렌트라고 하는 용어는 이 양자의 조화를 저해할 가능성 있다.”고 염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 이 말의 등장으로 보호자의 도에 넘치는 클레임 행동이나 학교나 교원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각종 매스컴의 풍조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거세진 점은 평가할 만한 변화로 보고 있으나, 역으로 클레임에 대응하는 행동의 격화, 즉, 클레임 행동을 하는 인간을 이번에는 철저히 비난하는 풍조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일본에서는 「몬스터 피어렌트」라는 타이틀로 드라마까지 방영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 드라마<sup>4)</sup>는 시교육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은 미모의 민완 여자 변호사가 주연으로 등장하여 몬스터라 불리는 개성이 풍부한 보호자들과 맞서면서 교육현장의 문제점들을 풀어가는 스토리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첫 방송 시청률이 19.1%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교육평론가인 호세이대학(法政大學)의 오기 나오키(尾木直樹) 교수는 이 ‘몬스터 피어렌트’들의 행동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5개의 타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학교 의존형] : 무슨 일든 학교에 의존하려고만 하고, 이를 이유로 학교에 항의를 일삼는 형.

- 우리 애를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해 달라.
- 학교에서 옷을 버렸으므로 세탁을 해 달라.
- 담임이 지각 대장인 아이의 마중을 왜 나오지 않느냐?
- 아이가 집에서 알릴증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선생님의 지도가 부족한 탓이다.

[자기 중심형] : 연극의 주역이나 붓글씨의 평가를 높게 해 달라고 요구 하거나, 자기 아이의 형편에 맞추어 학교 행사의 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형.

- 합주 발표회에서 지휘자가 객석을 보고 돌아서서 지휘를 한다.(지휘하는 아들의 얼굴을 비디오로 찍고 싶다는 부모의 성화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으로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 장면이다.)
- 소풍에서 자기 딸이 찍힌 사진 매수가 적다는 이유로 담임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어느 초등학교 학예회에서는 ‘백설 공주’ 연극을 하는데, 학부모들의 성화 때문에 일곱 난장이나 마귀할멈과 같은 배역은 아예 없애고 주인공인 백설 공주만 25명이 등장했다고 해서 화제<sup>5)</sup>가 되었다.

[노 모랄형(No moral)] : 이른 아침이나 밤늦은 시간은 물론 수업 시간 중인데도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장시간동안 시시콜콜 간섭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형.

[권리 주장형]

- 감기로 며칠동안 학교를 쉬었으므로 그동안의 급식비를 돌려 달라.
- 주민세를 냈으므로 급식비를 지불할 수 없다.
- 의무교육은 무상이므로 야구부 유니폼은 학교에서 세탁해 달라.
- 우리애가 왕따를 당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겠다.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를 내라.

[부모로서 의무 태만형] :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심지어는 학대를 하는 부모,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옷 세탁은 물론 목욕도 시키지 않고 등교시키는 등 부모로서 보호 의무를 대만히 하는 형.

3) 오노다(小野田) 교수는 학교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 즉, ‘이차몽(イチャモン: 無理難題要求)’에 대한 실태를 연구하여 『비명을 울리는 학교(旬報社)』라는 책을 출판, 큰 화제가 되었다.

4) 원제목은 ‘몬스터-ペアレント’. 関西에서 2008년 7월 1일에 방송(매주 화요일 밤 10시)을 시작하여 9월 9일에 제11회로 막을 내린 드라마. 변호사역의 주인공은 탤런트 요네쿠라 료우코(米倉涼子)가 맡았다. 그녀는 2008년부터 1년간 ‘한국문화관광 친선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매주 바뀌는 드라마 주제들을 보면 ‘딸애의 담임을 바꿔라!’, ‘학급을 폐쇄하라!’, ‘급식비를 낼 수 없다.’, ‘아들은 반드시 의사로 만들어야 한다.’, ‘학교 소풍 날자를 바꾸어라.’ 등이 눈에 띈다. 이들 타이틀만 보아도 어떤 내용인지 상상이 되리라고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http://www.ktv.co.jp/mp/>를 참조하기 바란다.

5) 2008년 6월 7일자, 영국의 타임지, ‘Japan’s ‘monster parents’ take centre stage(<http://www.timesonline.co.uk/tol/news/world/asia/article4083278.ece>).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몬스터 피어렌트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일까?

먼저, 미야시타 히데아키(宮下英明) 북해도교육대학 교수는 ‘몬스터’는 「신인류」<sup>6)</sup>의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는 말로 보고 ‘몬스터 피어렌트’나 ‘책을 읽지 않는 대학생’ 등 기성세대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젊은이’가 여기에 속한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사회성이 제대로 교육되지 못한 시대나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기가 길어지면 몬스터는 대량 발생된다.<sup>7)</sup>고 주장하였다.

오노다(小野田) 교수는 이들 몬스터라고 불리는 학부모들은 1970년대 후반에서부터 1980년대 전반에 걸쳐서 학창시절을 보낸 세대로, 그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교사들로부터 체벌 받는 일은 다반사였고, 또 고속 성장기였던 이 시기에는 교직에 대한 인기가 비교적 낮았기 때문에 실제로 질 낮은 교사들도 많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뿐인 「데모시카(デモシカ)선생」<sup>8)</sup>들로부터 직접 배운 경험이 있는 지금의 보호자들은 근본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불신과 함께 존경심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고교교사인 키이레 카즈미(喜入克)는 ‘보호자의 소비자 의식의 폭주’로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보호자는 자기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손해를 보는 대우를 받는 것을 참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같은 값을 지불하면 똑 같은 상품이 손에 들어온다.’고 하는 의식으로 교육 서비스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어느 학년의 학급 담임들이 초임, 중견, 평판이 좋은 베테랑 교사로 구성 되어 있다고 하자. 몬스터 피어렌트는 자기 아이가 ‘베테랑 교사’ 이외의 학급에 배치되는 것을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격차사회(格差社會)<sup>9)</sup>대한 보호자의 불안감 고조가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정리 해고나 급여 감소 등 경제적 불안이나 사회적 고립감을 안고 있는 보호자 자신이 그 불안이나 불만을 발산시키는 대상으로 학교나 교원들에게 향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외에도 마스크의 안이한 보도<sup>10)</sup>나 지역사회의 역할 감소, 즉, 학교에 대해서 보호자 개개인이 갖는 불만들에 대해 옛날에는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그 완충역할을 했으나 요즘은 지역 내 인간관계가 희박해진 결과 모든 불만을 직접 학교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는 점과 ‘말을 하지 않으면 손해(바보)’라는 사회적 풍조가 만연한 것도 그 원인의 하나로 보고 있다. 특히, 교육개혁의 와중에서 잡무

6) 「신인류」는 1978년에서 1987년 사이에 성인이 된 젊은이(1958년~1967년생)들을 나타내는 말로 주로 마스크에서 사용한 말. 이들은 성숙한 성인으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임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책임도 거부하면서 사회 그 자체를 하나의 픽션이라고 보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종래의 주류문화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감성이나 가치관을 드러내기 시작한 세대. 이 말은 1986년에 ‘새로운 말(新語)·유행어 대상’에 뽑히기도 했다.

7) 미야시타(宮下) 교수의 홈페이지(<http://mi.wa.hokkyodai.ac.jp/education/monster>)에 소개된 「대학인을 위한 대학론 -국립대학 법인의 법칙-몬스터 교육」 1장 1절 참조

8) 일본에서는 1970년대 후반에 교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지원만 하면 쉽게 교사가 되었다고 한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취직도 안 되는데) 선생이라도 해 볼까?(先生にでもなるか)」라고 생각하고 선생이 된 사람도 있었고, 또, 그들 중에는 무능하다고 지탄을 받아 「학교 선생 이외에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선생(先生にしかなれなさそうな先生)」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도 있었다. 이 두 말을 줄여서 당시에는 「데모(で)시카(し)카」 선생이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한다.

9) 격차 사회란, 어느 기준을 가지고 인간 사회의 구성원을 계층화한 경우에 계층간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계층 이동이 불가능 혹은 곤란한 상태, 즉, 사회적 지위변화가 어렵고, 사회이동이 적어 폐쇄성이 강한 상태가 존재하는 사회를 말한다. 현대 일본 사회에서 ‘격차’라고 말하는 경우, 주로 경제적 요소, 그 중에서도 세제나 사회보장에 의한 재분배를 하기 전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10) 2008년 5월, 「아사히(朝日)신문」과 「週刊文春」보도로 밝혀진 「살인 교사」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후쿠오카(福岡)현의 어느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기학급 어린이를 왕따시켜 자살에 이르도록 했다고 매도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교사에 의해 지질러진 최초의 왕따 사건」사례로 주목되어 큰 관심을 끌었는데,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담임교사를 범정에 고발하였다. 마스크의 일방적인 보도와 보호자의 주장에 동조한 550명의 호화 변호사군단이 결정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으나,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 보호자의 고발이 거짓으로 날조되었다는 사실이 차례차례 드러나 1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피고인인 교사가 승소했다.

에 시달린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접하는 시간이 짧아진 것이 보호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주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이와 같은 몬스터 피어렌트가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교직원들은 그 대응에 막대한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그 결과 교재 연구, 수업 준비, 생활 지도, 부 활동 지도, 보충 학습 지도 등 다른 학생들을 위해 써야할 시간이 없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관리자의 무관심 등으로 조기에 조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담임교사 혼자서 해결하도록 방치한 경우, 그 피해가 확대되어 해당 교원은 몸도 마음도 깊은 상처를 입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실제로 2006년에 동경도(都)내의 초등학교 초임 여교사가 일부 보호자들로부터 심야에까지 항의 전화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알립장을 통해 인신공격을 당하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몬스터 피어렌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먼저, 오노다(小野田) 교수는 보호자들의 불만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구함으로써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그는 “이 문제는 교사와 보호자 사이에 대화를 시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런 부류의 보호자들은 사실은 뭔가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눔으로써 보호자들에게는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의 참 모습을 납득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고, 교사나 학교 측에서는 보호자가 제기한 불만의 뒷면에 내재된 괴로운 심정을 헤아려 보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키이레(喜入)는 몬스터 피어렌트에 대해 교직원 개개인이나 학교 단위에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교육위원회 내에 전문 대응 팀을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전 아베(安部) 내각에서 설치한 ‘교육재생회의’<sup>11)</sup>에서 키이레(喜入)의 생각에 가까운 대책을 내 놓고 있는데, 2007년 6월에 ‘학교문제 해결 팀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학부모들과의 분쟁에 부담을 느끼는 교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송비용 보험(교직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2007.7.12) 보도에 의하면, 2007년에 동경도내 공립학교 교직원의 1/3이 이와 같은 ‘소송비용보험’에 가입했고, 그 가입자 수가 2000년에는 1,300명에 불과 했으나 2007년에는 21,800명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이 보험은 교직원의 불법행위로 생긴 피해자에 대한 개인배상책임은 물론 불법행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피보험자가 소송을 당했을 때는 소송비용도 부담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영 컨설턴트인 혼마 마사토(本間正人)는 “몬스터 피어렌트는 보통의 인간이 일시적으로 몬스터화된 상태로, 그들도 항상 몬스터는 아니기 때문에, 몬스터화 된 인간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도 언젠가는 자신이 몬스터로 변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입장에서 기업 내에서 행하는 인재육성 방법론을 응용해서 몬스터 피어렌트 대응 매뉴얼을 작성했다고 한다. 이 매뉴얼에 의하면 ‘일대일로는 대응하지 않는다’, ‘반드시 자세한 기록을 해두고, 가능한 한 주고받는 말을 녹음해 둔다’, ‘맞장구를 칠 때에는 상대방이 말하는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학교 리스크 매니지먼트 추진 기구’가 발행한 ‘교직원을 위한 보호자 클레임 대응 매뉴얼’에서는 ‘클레임 대응의 기본적인 원칙, 해결까지의 과정, 미연 방지책, 정당한 지적과 비판에 대한 대처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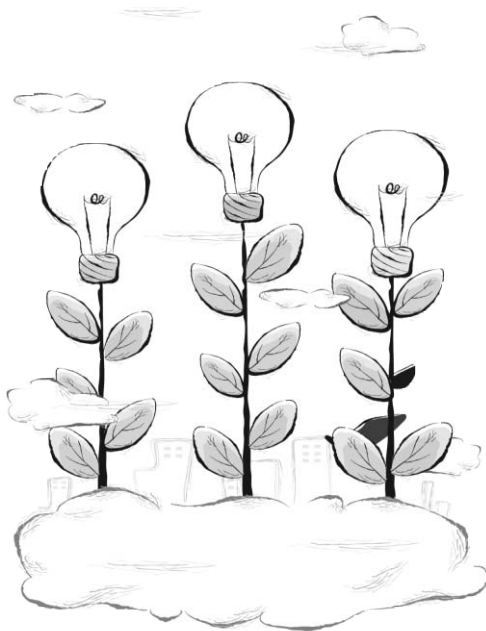
11) 교육재생회의(Education Rebuilding Council)는 교육개혁(재생)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아베(安倍) 내각에서 2006년 10월에 새로 설치한 기관으로, 이 회의를 설치한 아베 내각이 2007년 9월에 퇴진함에 따라 2008년 1월 31일에 최종 보고를 제출한 다음 해산했다. 그 다음의 후쿠다(福田) 내각에서는 그 후속 조직으로 ‘교육재생 간담회’를 설치, 운영했다.

과 함께 25개 사례별 대처법과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서식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실제로 요미우리(讀賣)신문 보도(2007.6.18)에 의하면 당시 일본 전국의 67개 주요도시 교육위원회 중 40개 교육위원회가 보호자의 클레임에 대한 실례를 파악하고 있었고, 그 중 18개 교육위원회에서 그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직과 교무주임을 대상으로 연수 실시(佐賀市), 교육위원회에 전문 직원 배치(奈良市), 경찰과 연계(名古屋市), 임상병리사와 협력하여 대응(東京都江東區)등 단계 대응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그 대책은 한층 더 강화되고 적극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 보도(2008.7.28)에 의하면 오사카부(大阪府) 토요나카시(豊中市)나 오키나와현(沖縄縣) 교육위원회 등에서는 변호사, 정신과 의사, 임상 병리사, 대학교수, 경찰 등 10~18명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학교문제해결지원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입장에서 지도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대응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몬스터 피어런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 변호사가 등장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본다. 마치 드라마에서 민완 변호사가 학교현장을 누비듯이, 교사들이 학부모를 면담할 때, 필요하면 변호사를 옆자리에 앉혀두고 법률적인 조언을 들어가면서 상담하는 시대가 이제 곧 현실로 다가올 것 같다.





호계중 학교



교장 전 광 속



마산시 내서읍에 위치한 호계중학교(교장 전광속)는 2003년 개교한 신설 학교지만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학생이 행복한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까지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여 정규 교육 과정을 보완하는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확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학생 개개인의 작은 고민에도 귀 기울이는 학교 상담 활성화로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실시된 '교육 혁신 경진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경남 교육의 명예를 빛내기도 했다. 특히, 개교 6년차를 맞이하는 올해부터는 '학생이 행복한 명문 학교'로의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꿈꾸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호계 교육 7대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Project 1 언제나, 어떤 고민이나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다양한 갈등과 고민 해결이다. 이를 위해 호계중학교는 지난 해에 마산시청,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등 지역 상담 유관 기관과 교육공동체 상담 네트워크 구축 협약식을 가진 바 있으며, 이러한 지역 연계 상담망을 활용하여 청소년기 학생들의 고민 해결과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있다.

특히, 지난 해부터 2년째 학교·가정·지역 대학 등 상담 유관 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수요자가 가장 이용하기 쉬운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학업·진로·건강·가정문제 등 제반 문제를 '통합적'

으로 상담해 주는 새로운 상담 서비스인 '찾아가는 ONE-STOP상담'을 창안하여 운영함으로써 공교육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 Project 2 뛰어난 학생은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시켜줍니다.

한편, 학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학생들에게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준별 교과 학습을 보완하여 교과별로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은 방과후 교육 시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영재 교육을 시킴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지금까지 경남대학교 영재교육센터와 연계한 수학 영재반을 비롯하여, 과학 영재반, 체육 영재반 등 수월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영재반을 운영해 왔다.



### Project 3 저소득층, 부진 학생은 멘토링 책임지도를 해줍니다.

아울러 학교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뛰어난' 학생들을 위해 수월성을 길러주는 것과 함께, '처지는' 부진 학생과 특수 아동 및 기초수급 대상자 자녀 등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멘토링 책임지도를 통해 누구나 더불어 배우는 행복한 학교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난 2006년도에 도내 처음으로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창원대학교 특수교육과, 마산시청과 멘토링 협약을 맺고 3년째 대학생 멘토링 결연 지도를 해오고 있다.





### Project 4 호계중학교를 졸업하면 컴퓨터 자격증 1가지는 따집니다.

호계중학교는 지식정보화·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명품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호계 전인 교육 인증제<sup>1)</sup>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1인 1 컴퓨터 자격증 취득 교육'을 1학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학기에는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자격증 취득, 2학기에는 컴퓨터 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정규 수업 시간과 방과후 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학기 말 현재 39%의 학생이 컴퓨터 자격증을 이미 취득하였으며, 2학기까지 모든 학생이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Project 5 호계중학교를 졸업하면 기초 영어 회화는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 인재'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기초 영어 회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규 수업 시간에는 영어교실(English Zone)을 활용한 상황별 회화 수업과, 영어단어 급수제 등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방과 후에도 원어민 영어회화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학 중에는 2주 동안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캠프를 운영하고, 영어회화 SKIT 대회, 영어 팝송 대회 등을 병행함으로써 영어 회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Project 6 호계중학교를 졸업하면 1가지 악기는 다룰 줄 압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정서 순화를 위하여 '1인 1악기 교육'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 국악기 중에서 비교적 익히기 쉬운 소금(小琴)을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정규 수업 시간이나, 방과후 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소금 연주를 하게 되면서 이른바 '랩 세대' 학생들은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소금 선율 속에서 바른 심성을 길러가고 있다.

1) '호계 전인 교육 인증제'는 호계중학교가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 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지(智)·덕(德)·체(體)를 겸비한 우수한 명품 호계인을 육성하기 위해 창안하여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호계중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1인 1 컴퓨터자격증 취득 및 기초 의사소통 능력 구비(지), 1인 1악기 교육을 통한 정서 함양(덕), 1인 1종목 체력 교육(체) 등을 학년별로 체계적으로 시켜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Project 7 호계중학교를 졸업하면 1가지 운동은 할 줄 압니다.

흔히 요즘 학생들은 체격에 비해 체력이 약하다고 염려한다. 특히 호계중학교는 대형 아파트 단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운동량이 부족하여 1인 1종목 체력 교육으로 생활 체육인 배드민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대식 학교 강당을 이용하여 2학년층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시간과 계발 활동 시간, 방과후 교육 시간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호계중학교는 아직 개교 6년차로 역사는 짧지만, 경남 교육의 긴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새로운 명문 학교로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 교직원들은 “학교를 학생이 행복한 보금자리로 만들어, 그 속에서 저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마음껏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교”로 만드는 것을 가장 큰 꿈이자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광숙 교장도 자신이 만들고 싶은 명문 학교에 대해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실력 있는 내일의 인재로 열심히 잘 키워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향해 힘찬 날개짓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라고 했다. 호계중학교가 명문 교육 7대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고 싶은 명문 학교의 꿈은 바로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주는 학교’이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호계중학교



## 천덕꾸러기에게 배운 지혜

양산 서장초등학교 교사 김 현 곤

처음 발령 받을 때 ‘존경받는 교사’를 생각했었다. 그 후 경력 7년쯤에는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교사’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은 교사’가 되었으면 한다. 교사 생활 10년을 반성하며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삶을 제대로 사는 교사가 되고 싶어졌다. 살다보면 참 쓸모없는 것들을 만나곤 한다. 맛은 없고 인테리어가 화려한 고급 음식점, 얼굴과 말에 권위와 학력이 묻어나는 데 실력없는 돌팔이 의사 등 모두가 가짜인 셈이다. 가짜를 만나면 속는 기분이 들고 때로는 허탈하기도 하다. 그런 부류가 교사 중에는 없을까? 사실 나도 그런 교사였다.

몇 년 전 이 사실을 알게 해준 한 천덕꾸러기 이야기를 해야겠다. 과거 난 학부모들이 인정하는 열정 넘치는 교사였다. 왜냐하면 아이들 신나게 하는 학급행사를 매달 치르고, 주말에 시간이 나면 인근 문화행사나 전시회를 아이들과 찾아다녔고, 뭐든 새로운 교육행사를 기획했다. 방학 중에도 한 번씩 공부가 모자란 아이들에게는 공부방을 열곤 했기 때문이다. 그런 나에게 천덕꾸러기 시우(가명)가 찾아왔다. 전학 온 날부터 매일 나에게 야단맞는 놈이었다. 아이들에게 계속 시비걸어 다투거나 원망을 듣고 수업시간에는 쓸데없는 장난으로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그런 녀석이었다. 일과는 아침부터 주의를 받고 야단을 맞거나 회초리를 맞았다. 물론 친구들도 매번 야단맞는 시우가 부담스러웠던지 꺼리는 눈치가 역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시장을 지나게 되었다. 차 창 밖으로 학교를 가고 있던 시우가 보였다. 길 가 구석에서 벌레를 보고 있는지 쭈그리고 앉아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다. 뭔가에 열심히 집중하는 것을 그 때 처음 보았다. 좋아보였다. ‘왜 저런 모습을 학교에서는 보지 못했지?’ 그 짧은 순간 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분명 생각도 많고 감정도 있는 녀석일텐데, 난 그 동안 무얼 보고 있었을까?’ ‘저 녀석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얼 좋아하는지’ 알지 못하고 야단만 쳐왔던 것이다. 정작 우리 반 학급운영에 ‘거창한 행사와 자랑스러운 나’는 있었는데, 그 속에 아이들의 마음과 생활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교사는 생활의 중심에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당이 아무리 거창해도 밥맛이 없으면 망하듯, 교사도 아무리 교과 진도를 충실히 하고 표창을 많이 받거나, 반 아이들 시험점수가 높게 나와도 아이들의 마음과 관심거리와 생활을 살필 줄 모르면 망한다.

과연 우리 교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승진인가? 대회입상인가? 학교 건물인가? 아이들인가?

그 후 나는 2년간 답임을 말할 수가 없었다. 물론 2년이 지난 후 별반 달라진 것은 없지만, 지금은 내 자식 키우듯 우리 반 아이들을 바라보려 한다. 아이들 한명, 한명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것을 알게 해 준 그 녀석에게 두고 두고 갚아야 할 빛이 생겼다. 바로 ‘괜찮은 교사’ 실수도 하고 잘못도 많지만 ‘괜찮은 교사’로 아이들이 기억해 준다면 참 좋을 것 같다.



## 비움과 채움

진주교대부설초등학교 교사 최 미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부장선생님께서 붉은색 소국을 한 움큼 안겨 주신다. 그랬다. 어느 소설에서 주인공이 했던 말 그대로 ‘공기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곁에 자리한다’고 했던 것처럼 가을은 어느 틈에 낫익은 얼굴로 우리 곁에 조용히 자리했다. 우리는 낫익은 손님과 마주하고 모닝커피를 한 잔 하고 일과를 시작한다.

여름방학, 교실을 정리하면서 너무 많은 잡동사니들에 놀라며 불필요한 것들을 치우고 있었다. 그 때 누군가 지나가면서 나의 푸념에 한마디 거든다. 비움이 곧 채움이라고.

우리 곁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 한마디로 비움 없는 채움이다. 그래서일까! 북천코스모스밭길 사이를 거니는데, 어둠이 곧 질디질은 별빛을 쏟아내자 한가로이 거니는 우리를 반딧불이는 항공촬영하고, 어두운 들길에 익숙하지 않아 서툴게 걸음을 옮기는데 등 뒤로는 풀벌레의 처절한 절규가 자지러지고 있었다.

차마 그 수고를 말로 대신하지 못한 침묵을 깨고 누군가 말했다

“우리는 농군의 자식이라 그런지, 들녘에 가득한 나라를 대신한 꽃밭은 웬지 모를 서글픔과 어색함이 아름답다는 생각보다 먼저 든다.”고.....

나도 언젠가, 광양 어치계곡 논밭에 온통 보랏빛 자운영을 보았다. 예전에는 이름 모를 풀꽃들과 어우러져 눈두렁가를 곱게 장식한 자운영을 보면 가슴이 울렁거렸었는데, 웬지 모를 답답함과 허전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있어야 할 곳에 꼭 있기 위한 비움과 채움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까!

차라리 길을 따라 꽃을 조성하고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바람결에 머리채를 이리 저리 흔들며 주기를 바라는 건 너무 큰 기대였을까!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는 채움으로 우리 곁에 자리한다. 그리고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러나 힘이 있는 음성으로 채움을 위한 비움, 비움을 위한 채움이 우리 삶의 흔적을 더욱 선명하고 아름답게 장식해 줄 것이라고.

점심시간 학교 앞 문구점에서 비움을 대신 채움 노트를 한권 샀다. 햇살은 따갑고 바람은 선선한 것이 아마도 가을 당신이 왔음이라고 알리는 듯하다.



## 말을 잘 합니다

통영 유영초등학교 학부모 변성자

사람의 말이란 참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초등학교의 계단에 붙어 있는 ‘들어서 기분좋은 말’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번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너밖에 없어.

잘 될 거야. 믿음직스러워.

네 곁에는 항상 내가 있어. 어려울 때 말해. 도와줄게.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속상해하지 말아. 내가 알잖아.”

때로는 이러한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말실수를 해서 큰 낭패를 본 경험이 있거나 않으십니까?

말의 실수는 당시 상황을 모르고 그 본질을 모르고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사람이 처한 입장과 상황을 모르고 한다면 오히려 그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말없이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지요. 침묵으로 인하여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꼭 해야 할 말인데도 내가 침묵함으로써 상대가 듣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한번만 더 생각하고 말을 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또는 ‘그 때, 왜 그랬을까?’라며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잡언에서는 말조심에 대하여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인한 잘못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면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말조심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말조심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먼저,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나 자신이 이 말을 하였을 때 과연 상대방이 얼마나 나를 이해하고 호응할까를 생각해 보면 꼭 해야 할 말과 그렇지 아닌 말로 구분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 마디, 별 의미 없이 내뱉은 한마디에 친구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고 있음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남을 위하여 마음으로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없을 때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따뜻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말에는 큰 힘이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생각은 말로 하지만 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난 못해”, “큰일이야”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들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하지?”보다는 “노력해 보겠다”와 같이 가능한 긍정적인 방향의 단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말

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매 순간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지요.  
긍정적이기 위해서는 어디서나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기가 살아야 운도 사는 것입니다. 불평은 자기를 파괴하  
는 자살폭탄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녕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주는 넓고 따  
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

사람을 세우기도 하며, 용기를 주기도 하며,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때에 맞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져갑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커피 한잔의 따뜻함을 연상시키듯이 여러분 모두가 남을 배  
려하는 정성으로 한 마디의 말이라도 생각해 본 후에 하는 작은 배려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모노릇 자식노릇

거제 중앙중학교 학부모 김 현 옥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자라고,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된다. 나도 내 나이 스물일곱에 결혼하여 이제 두 자녀를 둔 부모가 되었다. 어느 누구에게 부모노릇을 배운 적도 없고, 공부한 일도 없지만 자연스럽게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중3과 중1이 되었고 내 나이도 마흔 셋이 되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부모노릇이 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 오래 전, 나의 어머니는 “자녀가 커 갈수록, 걱정도 커 간다”고 하시더니 나의 미숙하고 어설픈 부모노릇과 자식 농사는 실수와 착오를 거듭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부모 노릇은 결코 열정과 욕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이 땅의 부모노릇은 어느 정도는 부모의 재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자식 농사의 성패도 좋은 학원, 좋은 과외 선생님을 찾아 비싼 학원비와 과외비를 대줄 수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다. 지금까지 나도 내 나름의 교육관과 인생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려 했지만, 때때로 주위 사람들을 보며 조금씩 흔들리고 고민하며 두 아이를 키워왔다.

이제 내 나이 마흔 셋이 되고 보니, 부족하지만 세상을 보는 식견이 조금은 생기고, 나름의 교육관을 가지게 되었다.

진정한 부모노릇은 결코 비싼 사교육을 제공하고,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가며, 주목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위사람들과 어울려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진정 자녀를 위한 교육이라고 본다. 신이 내 자녀에게 부여한 고유한 재능과 능력을 발견하고 키워 가도록 지켜봐 주고 조용히 응원하는 것이 부모의 올바른 역할인 것 같다.

결국, 성공한 자식 농사란 남들보다 뛰어나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 동료들과 더불어 경쟁 없이 인생을 느긋하게 즐길 수 있고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경쟁에서 옮근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 스스로가 올바른 생각으로 인생을 소중하게 가꾸어 가야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은 부모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나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아들딸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가꾸어가고, 부끄럽지 않은 이 땅의 구성원으로 잘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부터, 나는 주위의 그 어느 누구와도 내 자녀를 비교하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으리라! 내 자녀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욕심 부리거나 조급해 하지 않으리라! 피카소를 수확경시대회에 내보내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부모, 톨스토이에게 세계적인 화가가 되길 기대하는 부모, 정명훈에게 훌륭한 소설이나 시를 쓰라며 다그치는 부모, 난 이제 그런 부모가 되지 않으리라!

신이 내 자녀에게 주신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고, 그것이 싹트고, 꽃피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바라볼 것이다. 행복한 미소로.



## 백제의 흔적과 녹차 밭을 찾아서

진주 동진초등학교 6학년 김 소 담

내생의 마지막 초등학교 여름방학이었던 2008년 여름방학 때 나는 다른 어떤 방학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행이었다. 공주와 그 일대로 떠난 여행은 가는 길은 멀었다.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오랜만의 여행이라 그런지 즐겁기만 했다. 우리가 먼저 간 곳은 무령왕릉이었다. 무령왕릉은 수학여행 때 가보았지만 끝까지 올라가보기는 처음이었다. 무령왕릉은 수학여행 때 본 것과 같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었다. 나는 무령왕릉에 가면 왕릉 모형 안을 보는 것이 제일 재미있었는데 이 날도 예외가 아니었다. 모형 안을 살펴보면서 실제 무령왕릉을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 중 한가지였다. 무령왕릉 못지않게 멋진 곳이 또 한군데 있었는데 국립공주박물관 이었다. 비록 국립중앙박물관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시설과 내용은 단연 최고였다. 여러 가지 무령왕릉에서 출토되었다는 유물들도 많이 있었고 백제의 삶의 터전답게 백제의 유물도 눈에 띄었다. 특히 청동거울이라는 물건은 흥미로운 물건이었다. 역사책에서 원시 시대 때 사용했다는 것은 본 적이 있지만 삼국 시대에 사용했다는 것은 처음 보았다.

그 다음날도 굉장히 흥미로웠다. 배부른 점심을 먹고 우리가 떠난 곳은 내가 보고 싶어 했던 푸른 백마강이었다. 수풀 사이에 숨겨진 시원시원한 물줄기는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다. 이름처럼 아름다운 강으로 마음까지 깨끗하게 변하는 것 같았다. 싱그러움이 넘치는 보성 녹차 밭도 가 보았다. 입구에서 녹차 밭이 계단처럼 펼쳐져 있었다. 난 녹차나무의 앞에서 은은하고 향긋한 향기가 날 줄 알았는데, 그냥 풀냄새가 나서 좀 당황했다. 아버지께서 녹차는 볶으면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하셨다. 가파른 녹차밭길을 올라가서 보는 녹차 밭은 정말 절경이었다. 공기도 맑아서 기분이 저절로 좋아졌다. 아버지께서 색깔이 너무 예쁜 녹차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다. 쓰다고 제대로 먹지는 않았지만 녹차 쿠키는 정말 맛이 있었다. 살짝 녹차향이 나면서도 달달한 맛이 보통 과자보다 두 배로 더 맛이 있었다. 우리 가족은 이곳을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여행의 아쉬움이 남아 하루를 더 여행하기로 하였다.

2박 3일 동안의 마지막 날의 마무리는 하동의 화개장터와 녹차 밭이었다. 보성과 하동의 녹차는 어떻게 다를까 궁금하기도 하였다. 그전에 우리는 화개장터에 가보았다. 무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활발한 모습이 정겨워 보였다. 시골의 넉넉한 인심이 느껴졌다. 하동의 녹차 밭은 보성과 달리 산과 들에 녹차가 자라고 있었다. 보성과 다른 멋진 풍경이었다. 하동에는 녹차박물관이 있어서 차에 대하여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나는 녹차는 딱 한가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전 같은 이름



이 다 있었고 종류도 여러 가지였다. 이 종류에 따라 향기도 다 다르고 모양도 조금씩 다 달랐다. 조금 고풍스러운 향기가 나기도 하고 어렵듯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정겨운 향기가 나기도 한 것 같아서 신비스러웠다. 그리고 이 녹차는 항암 효과와 고혈압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치료 효과가 있는 마법사 같은 존재라고 한다. 나 같은 어린 사람들은 녹차가 쓰다고 잘 안 먹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녹차가 새삼 놀라운 것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볼거리도 많고 알 거리도 많았던 여행은 정말 오랜민인 것 같다. 가족과 함께 하여서 더욱 즐거웠던 것 같다. 백제의 문화재를 탐방하고 두개의 녹차 밭을 다니는 여행은 정말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특히 우리나라에 그렇게 아름다운 명소가 많을 줄 몰랐다. 역시 우리 한국도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멋진 나라였다는 것을 알게 해준 여행이기도 하다. 매년 여름방학을 그저 평범하게 보냈는데 초등학교의 마지막 여름방학을 보람차게 끝낸 것 같다. 중학생이 되더라도, 고등학생이 되더라도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싶고 내 마음이 깨끗한 백마강처럼 맑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합천고등학교 이준철

제가 살고 있는 합천은 한국 유학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신라의 고운 최치원께서 만년을 보내신 곳이며 퇴계 이황과 함께 조선조 유림의 거두셨던 남명 조식선생이 나시고 가르침을 베푸신 곳입니다. 또 많은 문인과 학자가 이곳에서 배출되었고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위험에 처하자 많은 유생들이 의병운동에 뛰어들어 조국을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버린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연유로 저희 고장에서는 옛 풍습과 유교의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고 서예를 취미로 하는 분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저는 유서 깊은 이곳에서 자라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아버지는 한의원을 개업하신 한의사이십니다. 연로하신 분이 많은 시골에서 이들을 위한 진료에 최선을 다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늘 존경스러웠습니다. 매주 부모님은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무료 의료봉사를 다니셨는데 꼭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련해 간 조출한 음식들이 이 분들과 함께 나누며 즐겁게 지냈던 기억은 언제나 저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예술촌'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공연과 작품전시회를 주로 하는 이곳을 만드시면서 어머니는 숭한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굳은 의지로 이겨내셨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에 가치를 두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값 비싼 운동화나 옷 따위는 아예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살았고 아직껏 휴대폰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모님을 모시고 있음을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에는 별 재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공부와 관련해 기억에 있는 것은 중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 일입니다. 부모님을 놀라게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한 끝에 전교 5등을 했습니다. 저도 부모님도 친구들도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멋진 경험은 계속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온갖 다양한 생명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학업성취라는 한 단면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기 때문인지 는 몰라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선생님도 이웃 어른도 친구도 어린 애도 하물며 집의 강아지까지 저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있으니 네가 있고, 적이 있으니 친구가 있고, 삶이 있으니 죽음이 있고, 이해관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자신들의 주장과 이익 추구에만 관심이 있는 현대사회에서 저처럼 묵묵히 들어주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제가 속한 공동체에 건전하고 유익한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할 생각입니다. 고등학교에서처럼 강요된 공부가 아니라 진정한 교양인으로 거듭나고 사회에 필요한 전문 지식으로 무장된 일꾼이 되기 위해 대학생활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범을 충실히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 영어몰입교육 어떻게 준비할까?

쉐리 리 지음 - 서울 : 삼호미디어(2008. 9. 발행)

- 영어교육 전문가로서 현재 영어몰입교육 교과서 개발에 참여 중인 저자가 영어 몰입교육의 진정한 의미와 방법, 효과, 영어 공부의 학습전략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교재를 엄선해 수준별 활용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많은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미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제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교실 현장은 어떤지,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청심국제고, 민사고 학생들의 영어몰입식 수업경험과 관련된 인터뷰와 청심국제중 서류전형 합격자 포트폴리오 샘플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영어공부 로드맵을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 그램머, 어휘 등 총 여섯 가지 영역별로 제시하여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 유 배

김만선 지음 - 서울 : 갤리온(2008. 8. 발행)

- 조선시대 죄인을 처벌하던 오형(五刑, 다섯 가지 형벌) 중 하나였다는 '유배(流配)', 그 유배의 죄를 받고 유배지로 떠나야 했던 조선 지식인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저자는 당시 유배인들이 어떤 과정으로 벌을 받게 되었는지, 유배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졌을 고민은 무엇이었는지를 이 책을 통해 전달한다.  
권력에 의해 유배라는 이름으로 얼룩져야 했지만 오히려 유배지에서 백성과 나라를 위한 꿈과 이상을 펼치고 위대한 문학과 예술 작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역사의 한 획이 된 김정희, 송시열, 정도전, 조광조, 지식영, 윤선도, 정약용, 정약전 등의 감동적인 삶도 만나볼 수 있다.



## 진짜 경쟁력은 국어 실력이다

홍성호 지음 - 서울 : 예담(2008. 8. 발행)

- 말장글쟁이 기자로 통하는 저자가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행하는 논술신문 <생글생글>에 연재했던 글들을 엮은 책으로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한국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국어 실력이라 말한다. 저자는 현장에서 갈고닦은 국어 실력을 발휘해 단어부터 조어와 약어, 문장 쓰기, 우리말 규칙 등을 교과서적인 딱딱한 설명이 아닌 우리가 늘 접하는 신문, 방송 등 미디어의 말글 실태를 바탕으로 구체적이면서도 현실감 있게 정리하고 있는데 국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자아낼 뿐 아니라 우리말의 깊이와 광활함에 놀라게 한다. 논술을 대비해 공부하는 수험생은 물론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나 회의, 미팅이 많은 직장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 대한민국 상식사전 아고라

아고라페인들 지음 - 서울 : 여우와 두루미(2008. 7. 발행)

- 고대 그리스 사회에 시민 생활과 집회의 중심이 되었던 광장 '아고라'가 있었다면 2008년 대한민국 사회에는 최고기와 민주주의로 촛불을 밝힌 집회의 중심에 인터넷 토론방 아고라(AGORA)가 있었다. 이 책은 아고라(AGORA)페인들이 그동안 아고라 토론방의 댓글 토론에 참여한 진솔한 글들과 진지하고 분석적이면서,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콘텐츠들을 모아 엮어 출간한 것으로 온라인의 특성상 단순한 감정의 토로와 발산의 장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경계하고 객관적인 논증자료 보여주기와 합리적인 논리를 통해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

## 교원지상갤러리



가을 뜨락



- 현 사천초등학교 교사
- 경남교원에능연구대회 시문자 1등급
- 경남남도서예대전 특선
- 서예문화대전 문인회부문 특선
- 개천미술대전 특선

김정순



「학생이 행복한 교육」  
경상남도교육청이 만들어 갑니다.

<http://www.gne.go.kr>